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8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 제329호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張一根 | 편집주간: 許 璠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AFS: 060-604-0011
홈페이지: www.snuu.or.kr

농촌 찾은 후배들, 한 여름의 땀방울 값지다!



모교 재학생 7백여 명이 지난 6월 29일~7월 8일 전북 정읍·무안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관련기사 18면>



관악추수

모름지기 국립대학의 이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 있다. 이러한 목표는 대학 자체의 자율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일시적인 정권의 요구나 규제로 훼손될 수 없음은 역사의 큰 교훈이다.

'폐지'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보이던 서울대학교가 다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국력의 낭비이다. 수능이나 내신의 변별력 보완으로서의 논술은 타당한 것이며, 논술은 원래 '단일교과형'이나 '개별교과형'일 수 없다.

서울대학교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는 지역균형선발, 특기자선발 및 논술이 강조되는 점시모집으로 3분의 1씩 뺄고, 그밖에 정원외 입학으로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 출신, 새터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려는 교육책으로 보인다. 이 안은 여러 대학의 호응을 얻었고, 시초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호평마저 받았다.

서울대학교 2005년 여름

'통합교과형 논술'의 실체가 정해지기도 전에 교육평등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를 본고사의 부활이라 강변함으로써, '나쁜 뉴스'로 둔갑시켰다. 이 단체들과 코드가 맞은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이를 '3불 정책'에 기반을 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공격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몇 사람의 비자성적인 과격한 돌출 인행은 크게 유감스럽다.

수습에 나선 교육 당국은 8월까지도 '논술'의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엔 '해비한' 심의기구를 신설한다고 한다. 물론 크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러나 여론은 반드시 정부나 여당의 편만은 아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술' 사태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얻는 기회로 승화시켰으면 한다.

첫째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에 관한 신중하지 못한 예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해서 편을 갈라 몇 사람의 우군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도덕적인 우위에 설 수 없는 행위이다.

둘째로, 교육은 국가의 미래에 직결된 중대사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더 신중한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가령 공교육 붕괴가 오랜 동안의 고교평준화 정책 탓이라면 외국에 의해서 보는 바와 같이 전향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셋째로, 지금까지와도 전 국민이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무한경쟁에 전력을 다 해야 할 때이다. 대학의 일은 대학에 맡기고 정부는 좀더 수준 높은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

외국의 모든 대학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는 동안, 아무래도,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은 2005년에 최악의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熙)



모습 드러낸 모교 미술관

<관련기사 18면>

만든: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李炯均, 南仲九, 金鎮錫,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元龍,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사립: 徐玉植, 李元愛, 高永才,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琪, 朴聖姬, 朴勝俊, 金鎮國, 편집장: 安典覺, 편집부: 기자 朴李宇, 裴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악화대학

鄭大仁·沈寬燮 동문 바둑 우승



악화대학동창회(회장 李金鎬)는 지난 7월 3일 서울 서초동 국민관 2층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 춘선 바둑

대회를 개최했다. 업무완제로 참석 못한 李金鎬 회장을 대신해 金鎬中부회장은 "동창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준 동문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문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조로 나눠 진행된 경기결과 A조에서 鄭大仁(재약67-71)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孔錫模(약674-79)·林祥雄(약학60-64)동문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B조에서는 沈寬燮(약화52-56)동문이 朴聖顯(재약69-73)동문을 꺾고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朴聖顯(재약69-73)·趙德益(재약69-73)동문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악화대학동창회는 오는 8월말~9월중순 경 골프대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10월에 홈컴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리더십과정

골프대회서 천목 다져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辛東烈)는 지난 7월 4일 경기도 광주 강남3000에서 1백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천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 40팀이 3일간 방식으로 시작

한 이날 대회에서 이현길(9기)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단체 우승은 8기에게 돌아갔다.

이날 대회를 위해 辛東烈(3기)회장이 전자오트간 1대, 성일산업 林勝熙(7기)회장이 1천만원, STX조선 姜勝壽(8기)회장이 1천만원을 후원했다. 등 30여 명의 동문들이 동문과 금원을 열성했다.

전문학과

신임 회장에 金榮哲동문

전문학과동창회(회장 金榮哲)는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이만파이 金榮哲(전문기상 67-71)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金榮哲회장은 "동문 참가 운동을 전개해 오는 11월 정기총회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吳勝烈(전문기상 58-65)·金文主(전문기상59-63)·金世豪(전문기상65-72)·李龍學(전문기상 75)·成映坤(전문기상 75)

79)·尹泰植(전문기상 75-79)·俞錫宇(전문기상 75-80)·金京振(전문기상 75-79)·朴惠範(전문기상 79-83)·黃基鎭(전문기상 84-88)·박승경(전문기상 89-93) 동문 등이 참석했다.

축산학과

새 회장에 張慶國동문

축산학과동창회(회장 金基鎭)



79)·尹泰植(전문기상 75-79)·俞錫宇(전문기상 75-80)·金京振(전문기상 75-79)·朴惠範(전문기상 79-83)·黃基鎭(전문기상 84-88)·박승경(전문기상 89-93) 동문 등이 참석했다.

축산학과

새 회장에 張慶國동문

축산학과동창회(회장 金基鎭)

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비둘관에서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축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한양사로 張慶國(축산65-69)사장(사진)이 새 회장에 취임했으며, 장무에 金慶土(축산82-86)·咸永仁(동물학원86-90)동문이 선출돼 앞으로 1년간 실무를 맡아 이끌어 나가기 됐다.

기타 인간 토의를 통해 '2007년 축산학과 창설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으로 韓仁植(축산52-56)안국과학기술진흥원을 선출했다.

총회 후 동문들은 모교 崔鎭鐵(축산73-80)교수의 인솔로 유학 오오 작은 이리 관광산을 등반했다. (南)

제1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9월 26일(월) 렉스필드CC

모교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결집하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총동창회장제 제1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졸업자 동창회와 지방·해외지부 동창회가 처음으로 모두 함께 하는 행사이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2005년 9월 26일(월)
10:00~19:00 (09:00 접수 완료)
- ◇장 소: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곡리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전화: 031-880-0300)
- ◇참가대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 지능지부·지방지부·해외지부 동창회별로 2개팀 출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가능 (접수는 해당 동창회에 문의)
- ◇예상인원: 60~75개조 240~300명
- ◇진 행: 샷간발식
- ◇신 형: 2005년 9월 5일(월)까지
- ◇참가비: 1인당 30만원 예정
(그린피, 캐디비, 식대, 참가상 등 포함)
- ◇시상내역: 단체전 및 개인전(여성부 별도) 어금, 행은, 각박상 등 시상, 출인원상은 최고급 승용차 준비
- ◇연락처: 전화 021702-2233 / FAX 021703-0755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서울대학교

단행본 '國家競爭力과 教育의 秀越性' 발간

모교 폐지론에 관한 각계의 반론 모아

본회(회장 林光炎)는 한동안 폐물처럼 여겨왔던 이리바 '서울대 폐지론' "대학 평준화" 등에 관하여 당시 "중장 회보에 실렸던 동문들의 반론,



올려 폐지론에 대한 국내외 전문의 특수를 담았으며, 2부에는 모교 吳興泰 총장, 노교단 사사기 다 캐시 총장이 인용과 기침 인

선전 각국의 교육정책을 다룬 좌담회 내용, 또 일부는 대중매체에 소개된 관련 글들을 모아 지난 7월 11일 단행본 '國家競爭力과 教育의 秀越性(비배준·사진)'을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논점들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기 용 원하는 많은 동문들의 뜻에 따라 '서울대 폐지론'에 나란히 원하는 결언가를 부재로 출판한 이번 시책은 고급양성 형태의 신국본 3백페이지로 엮여졌으며 부록을 포함해 총 50부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는 동창회보에 게재된 시

타부 내용을 실었습니다. 3부에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특별좌담회를 열어 소개한 중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인도 등의 교육정책, 알리언 교육 사례 등을 다뤘습니다.

또 4부에는 일반 매스미디어에 게재된 대외 평론에 대한 글들을 모아 놓았으며, 부록으로 동창회 일화와 모교 교수 명단을 실었습니다.

본회는 이번 단행본을 한정판으로 발행했으며, 여러 동문들의 공란을 위하여 동창회 일화를 비롯한 모교와 동창회의 여러 유취 기록에 배부했습니다.

본회 金道烈교문 별세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 20분 별제자정을 지난 金道烈(법학43-47)교문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경복 안동 출신인 교문은 제1회 사법고고고시에 합격했으며, 모교

법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보건사회부·문교부 차관, 제9대 국회 의원, 모교 대학원동창회장, 자단법인 관악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2년 본회에 1억5천만원을 출연, 교수50자 특수장학회를 설립해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유족으로 金相河(약학78-82) 뉴욕심장내과병원장, 金鎬均(경계 79-83) 아수페티스 대표, 金性均(경영82-86) 무한투자 사장, 金惠英(생약79종) 동문 3남1녀가 있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본원묘역. (후도44년)



이순테니스회

閔寬植·安孝英 등문 우승

테니스회(회장 金明煥)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 코트에서 제43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말순조, 이순A조, 이순B조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32명이 참가해 즐거운 만남과 함께 체력단련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참가한 모든 동문에게 '耳順동문테니스'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2점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이 기념품은 閔寬植 등문 이 협조한 기금으로 제작했으며 鄭煥榮(국어교육53-57) 동문이 로고 도안을 디자인했다.

이번 경기결과와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말순조 우승: 閔寬植(농학40졸)·安孝英(농경제48-52) 동문, 준우승: 馬景衡(화학45-48)·朱樂元(사화50졸) 동문, 3위: 全敏熙(토목45-48)·崔熙輝(약학51-55) 동문, △트럼 A조 우승: 金敎成(전기55졸)·裴仁河(통물59-66) 동문, 준우승: 謝得君(상하53-57)·高相雄(상하53-57) 동문, 3위: 朴昌根(교육51-58)·沈載範(사회교육56-60) 동문, △트럼 B조 우승: 金正敏(건축52-56)·金圭華(금속49인) 동문, 준우승: 朴南浩(건축52-56)·趙鎭鉉(의학45-49) 동문, 3위: 李仁鎭(체육교육53-57)·車載浩(심리52-56) 동문.

다음 대회는 개천절인 10월 3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정책과정

9월에 홈페이지 개설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東俊)는 지난 6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동문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초잔치마나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李東俊(사회72-85) 국무총리기연사로 초청돼 '참여정부 성과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번 총회에서 우 허난징에 미국 일류대 고위정책과정 연수 및 여행, 동문 골프대회, 명부 발간, 동문 사업장 시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 오는 9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범대 二水會

토지공개념 토론회

범대 67학번 모임인 二水會(회장 林昇煥)는 지난 7월 13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정기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경복대 金熙相(법학67-71) 교수는 '일기 쉬운 토지 공개념'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과열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林昇煥회장은 모임 추가에서 "이번 모임은 金熙相교수와 李春鎧교수의 논쟁을 포함한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라도 하등의 작대감 없는 토론 문화의 정수를 가졌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모임에는 姜君宇·郭允豪·權亨發·金永秀·羅大鎭·南永區·南宮成·文東恩·朴元治·李恭植·李大羽·李相龍·李榮興·李佑赫·李民厚·林英順·田光錫·鄭東旭·鄭在昊·鄭珍奎·鄭鎭昌·陳炳昊·崔江浩·朴成濤·崔現瑞·黃鶴中 등 67명이 참석했다. (南)



을 역설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립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陳大濟장관 'IT와 혁신' 강연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日珠)는 지난 7월 20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아아론드홀에서 정보통신부 陳大濟(전자70-74) 장관을 초청해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모교 행정대학원 李連坤원장, 吳然天교수, 본회 許宣서부총장 등 동문 1백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陳大濟장관은 'IT와 혁신'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우리 나라의 성장동력으로서 IT산업의 중요성

동문 작품 전시회



尹亨子 作

정2031 화선지 위에 수묵담채, 67×67cm, 2000.

<작가약력>

- ▲61~66년 모교 미술대학과 졸업
- ▲개원전 4회
- ▲86년 서울대 한국미술전, 한국미술협회전
- ▲87년 달구벌 미술전, 원로작가 106인전
- ▲88년 영·호남 미술교류전
- ▲90년 대구여성 15인전
- ▲93년 한국현대미술 66인전
- ▲94년 제1회 대구미술대전 초대전
- ▲96년 경북개도 100주년 기념전
- ▲97년 대구미술역사 70년전, 국회 한미미술작품전
- ▲98년 한국중장작가 초대전, 강원엑스포 현대미술제
- ▲00년 대구·광주 미술교류전, 대구미술협회전
- ▲현재 대구기림미술대학부동양화선공 명예교수

牧村 金道根교문을 기리며

이 나라 공법학의 큰 별이 지셨습다. 그 분은 이 땅의 모든 법학도 그리고 법실무자들 앞에 우뚝 서신 바로 牧村 金道根박사 이십니다. 우리 행정법학의 대명사를 이루시는 선생님, 사람들은 선생님을 '한국행정법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공법학의 지평을 넓히고 다지는데 언제나 앞장 서 오신 선생님, 선생님은 하늘 나라에 올라가시는 날까지도 정녕 선생님께서 우리의 헌법기반일인 재헌절 초저녁이었습다.

선생님의 팔손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받으신 지 한 달도 채 못된 날, 아직 일고도 마르지 않은 바로 이 책을 안으시고 선생님을 끝내 떠나시고 말았습다.

선생님은 이 땅에 전개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어느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해석하신 분이었고 하셨습니다. 해방직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신 뒤 1949년 서울에 조교로 신임되시면서 牧村 선생님의 학문세계는 비야흐로 전개되기 시작습다. 법제관으로부터 시작된 최고위 행정가로서, 국회의원으로 또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구미 각국의 수많은 국제회의와 연구기관 등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폭넓은 활동의 동산(動線)을 펼쳐 오셨습다.

그러나 진정한 선생님의 머리와 가슴은 학문과 교수에 있었습다. 학파와의 부신과 끝없는 정진은 이 땅에서 법학을 공부한 모든 이들에게는 더 없는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다. 직접 강의의 통쾌하든 주독하든 논문과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든, 선생님의 학문을 입지 않고 이 나라에서 법학과 가련 여자를 수 있었습니까? 결코 없습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습다. 행정법학자 金道根교수를 어느 누가 대체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싼시 가운데서도 "죽는 순간까지 알고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호령을 하시고, 스스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공법이론의 개척과 발전에 평생의 정열을 오심에 따라 사구와 일반 공법학의 성과를 전해주심은 물론이고 특히 이 나라 고유한 행정법학을 구축해 다른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또 다른 업적을 쌓으셨습다.

법률가를 존히할 때만 박학하고 재미있다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다. 선생님을 가까이서 접해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는 분이 없을 것습다. 바깥의 국 여행 중에도 틈을 타서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교향에 들리거나 클래식 레코드판을 수집하시는 것이 선생님의 또 다른 진면목이었습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즐겨들으셨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로 선생님은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을 지향하는 꾸준하고 끊임없는 자세로 인생을 사시고, 구도자적 정신으로 학문을 가다듬으시어 오늘의 牧村 金道根박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후학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다. 팔손을 남기신 선생님의 기쁨은 자신이 개척해 놓은 학문세계가 후학들에게 계승되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다. 선생님도 그 평생 소장하던 논문도서 5천권을 자신의 고회로 전후하여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 기증해 복촌본교(牧村文庫)를 마련했으며, 이러한 선생님의 뜻은 2002년 모두 서울대 동문인 네재니(惠英(신학), 栢均(의학), 齊均(경제), 性均(경영))와 함께 서울대동창회에 牧村父子 특기장학금의 출연으로 발전되었습다.

이 땅에 행정법학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학문적 정제성을 가다듬으시며 그 지평을 넓히시는 데 더욱 앞장서서 오신 선생님, 이 나라 공법학의 앞날은 이제 저희 후학들에게 맡기시고 편안한 영면하십시오.

崔松和(행정59-63)前 모교 부총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일 시: 2005년 10월 16일(일)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동문 및 동반 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참가: 다량의 산물 수집(林光洙회장 소할 송용주 제공)

△문의전화: 02)702-223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林光洙

光復 60周年

특별기고

수십만 순국선열의 투지 잊지 말아야

독립운동의 말막에 섰던 본인은 매년 8·15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쁨보다 슬픔을 생각하게 된다. 광복으로 일무로 다하지 못했고(본국 진격 작전) 임시정부 金九 주석의 기요(機要)비서로서 말은 사명(국내 정부공작)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복 후 조국의 통일운동에서도 다하지 못했음 뿐 아니라 몇몇한 사회적 문화 유산을 후세에 남겨 주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에는 좀 다르게 느낀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남북이 함께 했으며, 盧武鉉대통령 특사로 鄭東泳장관과 金正日군사위원장의 의기 상충하여 민족화합의 회담이 잠시간 이뤄졌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를 약속하는 가운데 1992년 1월 20일 발표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선전의 유언이라고 그 유력한 인정한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좋은 징조이며 몸코가 트인 듯하다.

1년을 넘게 중단되었던 남북장관급 회담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작업단과 남북적십자회담도 이루어져 이산가족의 상봉도 저지됐다. 또 금강산에 면회소 건설도 계획한 대로 착수하게 됐으며, 개성공단도 활기를 띠어 경의선, 동해선도 10월경에 개통되고 북한의 민생을 위해 비료와 식량을 대량 지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광복 60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남북이 함께 하며 비하인드 남북이 평화적 화해 교류 협력의 시대로 접어드는 풍복년을 맞이하게 되니 온 겨러의 가슴속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다.

남북 겨레가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조국통일을 이루려면 그 운동은 순국선열과 애국선열의 사정하의(犧牲犠牲)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적정의의 실현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지 60년이 되는 광복절이 우리 모두 50년간에 걸쳐 선열들이 귀환복을 위해 투쟁하신 독립운동의 피어난 발자취를 잠시 돌아보기로 한다.

우리 민족은 노닐거리는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16년 간에 걸친 의병투쟁이 전국 산하를 피로 물들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28년 동안 중국 동북, 서북간도, 그리고 시베리아 황야까지 북방산악 속에서 의진고립한 민주독립군이 용감하게 싸워 이긴 공로로 승전, 청산리 대첩, 대전지령(大甸子嶺) 대승을 비롯한 수십 차례의 독립전쟁에서 희생된 수십만 순국선열들의 투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독립군의 근대적 이념은 한국공민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1940년 9월 17일)으로 창군되어 다음해 대령장관

장서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에 한중·한영 합동작전에 참가했으며, 한미 OSS 공동작전도 전개해 한반도 삼국작전을 감행하기 위한 일본군의 초기 부하로 항일 무장투쟁자의 활약을 장식했다.

1919년 7족작으로 전개한 3·1운동의 결정지로 선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7년간 계속된 독립투쟁은 조국 광복의 대입을

이루는 민족투쟁사의 총화라 된 것을 명심해야겠다. 수많은 열사들의 의열투쟁, 화원문화운동, 항일학생운동, 애국계몽운동 등 끊임없이 이어진 찬란한 독립투쟁사들이 광복절에 가슴 깊이 도실어야 할 것이다.

광복 후 남북의 분단을 지지하기 위해 임시정부 金九 주석을 비롯한 각 직급과 주도한 평양 남북협상(1948년 4월 30일)에서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공동성명'으로 통일의 초석을 세워 그 후 24년(1972년)만에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뤄냈다.

또 다시 19년 만에(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되새겨보아야 하고, 대를 통해 비롯하여 정치인들은 보수와 혁신이 대동단결하여 상생의 정치를 펴서 온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다.

부디 선열의 유지를 명철히 받들어 온 겨레가 화합, 협력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서 부강하고 사랑스러운 문화국가로 화합해 나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金祐鎔
(AMP 77)
前韓僑회장

남북 신명난 '축제'되도록 열성 다해

온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 한반도', 온 겨레가 모여 기쁨을 나누며 멋진 내일을 다짐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나라의 환갑을 맞이하는 큰 잔치라면 아마도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것이다.

나라의 환갑잔치를 준비하는 그 큰일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환갑잔치,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지만 내 기억으로는 인생사에서 가장 큰 잔치였다. 그런 잔치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기에 지난해 밤 처음 방을 받았을 때 잠조차 푹하 잠 수 없었다. 더욱이 위 원회 출신이 늦었기에 조바심은 더했다.

온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 한반도', 온 겨레가 모여 기쁨을 나누며 멋진 내일을 다짐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나라의 환갑을 맞이하는 큰 잔치라면 아마도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것이다.

나라의 방침에 따라 행사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의 위원회와 그런 행사가 되어야 했기에 일의 진행도 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런사리 위원회가 구성돼 청와대에서 의욕적 각 상견례를 가진 것이 2월 초였으며, 첫 회의는 2월 중순 열렸다. '진실과 화해', '문화와 화합', '미래와 세계'라는 3대 모토가 확립된 것도 이때였다.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을 실현하고, 이제 화합을 맞이하는 한 단락을 대입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했다. 광복 60년은 곧 분단 60년이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자랑스러운 60년이겠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이 마련하기로 했다.

기념사업의 주제를 새로운 시작으로 다듬은 것도 이 즈음이었다. 사업계획의 원칙으로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행사를 지양하고, 화합과 참여를 보강하며, 세계와 함께 하는 다문화적인 사업들 중심적

으로 꾸려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청년·학생들이 꿈과 이상을 널리 펼치도록 하는 사업을 위해 노력했으며, '다짐될 노마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공모도 했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추진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책임성을 거느려 임무를 추진해야 하는 반면 민간인사들은 전문성은 있으나 복수가 다양한 관계로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 타협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장은 회의 끝에 6월 1일

에야 주요사업 15개를 포함해서 51개의 광복 60년 기념사업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비, 느낀 바가 많았다.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됐지만 51개 사업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나란 경제의 형편을 감안해 줄이고 또 줄인 결과로, 모두가 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고, 알리고 내실 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

정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성숙한 대한민국, 매력 있는 선진한국을 실현하는 데 함께 했다는 보람을 위해서라도 할까...

하지만 무서리가 내린다고 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듯 비 온 뒤의 땅이 굳어진다. 내실 있는 행사, 잔잔한 감동을 주는, 광복 6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축제의 장에서 국민들이 기뻐하며 자부심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꿈과 그에 대한 가장 높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계속 꿈을 흘려겠다는 약속을 먼저 본다.

앞으로도 어려운 난관을 맞이 거처야 할 것이지만 공무원과 민간인사의 역할이 이음직으로 조화되면서 책임성과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광복 60년 사업은 기념사업의 한 새로운 기록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념사업은 신속과 효율 면에서는 뒤떨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광복 60년을 맞아 민주화를 이루고 신민을 이룬 우리가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행정의 선(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해방 후 처음으로 남북의 겨레가 함께 어우러져 한란 큰 '축제'를 갖는다면 그 의의는 한층 더할 것으로 생각한다.



洪允植
(법학75-79)
광복6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장

이제 우리는 격동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호황을 고르며 새로운 운비를 준비해야 할 때다. 광복 후 60년이 우리를 지켜준 준비해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아시아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동창회보에 관련 동문들의 감회와 소견을 담아보았다.

제2의 광복 '통일'기반 마련할 때다

올해는 우리의 선구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조국 광복이 있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방방곡곡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맨발로 뛰놀고 한바탕이 되어 일제강점기를 떨쳤다. 그 날의 감격과 환희가 신천리 금수강산에 이어질 때 이제부터 우리 민족의 앞날은 자유와 독립,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듯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가 좌·우익 논쟁 등으로 인한 국민분열과 민족의 역량부족으로 당시 주어진 국제여건과 시대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변천하는 동서남북 체제의 굴레를 피할 수 없어 쓰러진 독재정권의 비극을 겪게 된 것이다.

6·25전쟁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전몰용사들, 그리고 전승군경들과 유족들은 나라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6·25전쟁의 참운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이제 한 편, 두 편씩 한 많은 생을 마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까지만 남북대치로 인한 유·해·공군의 폭우 상해병들의 이끼온 희생과 유가족들의 비통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면 여기에 대치하는 적대국가나 세력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서는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헌신하겠다는 정신 무장이 되어야만 한다. 즉 국민의 호국 의지와 나라사랑 정신은 국가무기력 회복의 관건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 보훈시책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 그 유가족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려 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우리 모두의 후손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지녀매김되도록 계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문헌적 독립유공자의 발굴·조사와 독립운동사의 재검토, 국권과 관련한 각종 보존행사의 실시와 보존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 전개, 그리고 해외 보훈사업의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애국선열이 안고 있어 있고 백범이 걸음마 위대한 효충을 세울

시와 함께 민족의 성자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효충열은 조선 후기 正祖大王의 장남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죽은 孝宗世宗의 묘가 있던 효충원을 일제가 사적을 제거하려는 홍계로 1940년 공원법을 제정하고 효충공원으로 개칭해 문묘제사의 묘를 서삼으로 강제 이장해 한 곳이다.

효충원은 1946년 백범 김九선생이 대구에 노적골에 임원으로부터 李春昌, 尹春吉, 白南基의 사의 유해를 봉안하여 삼사의 묘역을 조성했고, 묘역 내에 安重根의 사의 허묘도 함께 설치했다. 또한 임

시정부요인인 李漢寧, 車利綱, 鄭成煥 선생과 백범 김九선생의 묘역 등이 있어 우리의 아픈 역사와 함께 이를 이겨내기 위해 신령을 내렸다. 애국선열들의 율이 스며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효충원 내에는 윤봉길, 노인회관 등 각종 시설물이 신재해 있어 민족정기를 살리는 사적지라기보다는 주로 체육시설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효충원을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역사교육을 비롯 세를 수 있는 민초의 성지로 조성해 선진국처럼 시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나라사랑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복 후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의 공훈과 희생으로 되찾고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6·25전쟁의 폐해와 보릿고개 등 모두가 허무로 인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까지 GDP 7천억 달러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놓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상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빈곤에 있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분열과 갈등,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소비열풍의 극대화, 국외의 개인주의 문화, 그리고 일부 사회지도층의 '노름대스 오일리' 부패 등은 우리의 필요로 한 한국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날 겪어야 했던 그토록 많은 실패와 희생을 모두 망각한 듯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는 연세 이다시나 나라사랑을, 마땅히 국가공공에 정당한 권리 권리를 결집해 나감으로써 제2의 광복인 대한민국을 영광케 할 일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鄭夏哲
(ACAD 2871)
서울지방법원행정장

시련과 영광으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

우리의 광복 60년사에는, 시련과 영광이라는 두 줄기 大綱의 격투라고 볼 수 있다. 좌우익들의 삼국 갈등의 산물인 빚어진 남북분단, 동족상잔의 6·25전쟁, 쿠데의 독재로 얼룩진, 집중노도의 시대를 넘어 마침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난자를 정취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기적적 변명을 이룩했다.

그처럼 단군 이래 3천년의 비극을 떨치고, 온 세계를 놀라게 한 자랑스런 성취와 위대한 역사는 '흔히' 인간에게 잘 살아가고 전제한 이른바 '형그리정신'이었다고 말한다. 한국전쟁 전후의 50년대는

서는 죽기살기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무너져 내리는 법대 출신인 줄 모르고, 법조계 취재를 맡기고, 특이한 법률 문제에 관한 해설기사를 쓰라고 할 때마다 허둥지둥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밤을 낮 삼아 법률 공부를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출판·언론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이 있다; 인정받게 되었다. 그 후 몇 년에 신문사의 논설위원을 역임하는 동안 신문·방송사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 구성된 편집인협회의 보도자문과 위원장에 선임되어, 10년간에 걸쳐 제

3문화정권의 언론탄압에 대응하는 언론훈예의 선봉 노릇도 했다.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등에서 강사를 맡아 8년간 언론·출판 관련 법제도의 충실도 있고, 6·25전쟁의 동맹국에 초청된 1년씩, 출판법률에 관한 연구생활로 보낼 수 있었다.

특히 가장 보람을 느낀 일단, 간첩죄로 정치재판의 희생이 되어 무고하게 사형을 선고 받은 친군관 사건을 풀



任洪彬
(법학52-56)
문화사상사 편집고문

기, '왜 좀 더 일찍 방탕이 죽지 못했는가?'라고, 자기의 변호이기도 한 3년(3년)을 통해서 2회에 걸쳐 유·목의 論爭을 붙여 '삼오당'의 뜻풀이를 엮었다.

얼마나 공주일이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일찍 방탕이 죽지 못했 것을 한탄했을까. 그 무렵 아첨한 인사는, '조지 잠수부님'이, '갑 먹었느냐'라는 말이 일삼아서 쓰였다. 그 때 고향에서 벗어난다는 익연의 두말 - 형그리정신이야말로 광복 이후 한국을 50년 이래의 빈곤에서 탈피해 한 원통해이라는 데 이틀을 뒤집어쓴 셈이겠다.

어떤 적부터 소설가의 꿈을 키워왔던 나는, 재학 시절 바느질 같은 법조계 진로를 단념하고, 법률 공부를 재배를 면할 정도로 다들 남기고 신문사 수습기자의 길을 택했다. 다행한 한 신문사의 수습기자 시절에 함석, 본격적인 기자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입사시험 경쟁률이 2대 1이었고, 합격자 5명 중에는 그 후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사장직을 역임하고, 언론까지 경제 후에 장관을 지낸 朴憲永(박헌영)도 있었다.

그로부터 입사 후의 10년사 10년사에서의 승진 또는 승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약, 당시 이 사건의 사고심리 주장을 달았던 金仲模 前대법관과 '진정' 지성을 통해서 2회에 걸쳐 유·목의 論爭을 붙여 '삼오당'의 뜻풀이를 엮었다. 어떤 일이든, 만약 그대 나에게는 허점이 있었다면, 어떤 젊은 金仲模부장이 이끌던 중앙정보부에서 능지처참까지한 인가더라도, 아마 초췌할까지는 각오했지만 부하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나는 내가 편견된 어찌구 내리는 사건으로, 범금 3백만원의 편견을 받고 형소심사에 계류중이었다. 내가 저지른 것에 관한 국제조약에 명시된 '법정 자백'의 취지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법원의 요건을 비뚤한 글을 실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이었다. 법원을 비판했다 해서 '대법원'을 직방당한 것인데도, 종로에서 한 출고고 한 강에서 뺨을 맞은 경험지도 모른다.

일단 법원은 사실관계의 원위도 분간 못 하고, 내가 이 선과 관련해서 고소할 작정이 없더라도, 여러 차례 무고소 고소를 했다가는 등, 자의적인 사실관과 법치용을 한 것으로 미루어 '마치재판'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있었다. 이해관계 요인에 대한 소리는 전, 어떤 내기 심어진 문명적 사형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농업이 살 길은 도시웰빙과 농촌생태문화의 결합”

문제를 찾아서

金成勳 상지대학교 총장·前 농림부 장관

“점이 들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생각, 경력에서 ‘農’자를 빼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상지대 金成勳(농경제58·63)총장. 金총장은 IMF시절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민들의 편에서 서서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했으며,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생산농가의 활로를 열어줄 친환경유기농업 제도를 도입·정착시키기도 했다.

지금도 그는 ‘건강, 생명, 환경’을 대표하는 강원도의 한 대학 총장으로서, 또 나라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각종 시민단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金총장을 만나 金총장의 대학교육 발전 구상, 농촌 경제 회복 방안,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시민 운동 방향과 학칙시절 이야기 등을 들어보았다.

— 그동안 농업경제분야 화자로, 공직자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지난 9월부터 상지대 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대학 총장으로서 어떤 대학교육 발전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수도권의 대학과 지방의 대학을 구분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교육정책,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뿌리내릴 수 있는 대학이 돼야 합니다. 수도권대학의 백화점식 교육을 지방대학들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학 스스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또 그 대학만의 특징, quality를 살려 특화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교육부 예산의 4.3%밖에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의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몇 개 안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성화를 해야죠. 운영하기 어려운 거대 학부나 학과는 국립대가 맡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과는 사립대가 집중 육성시켜야 합니다. 사립대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지방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사립대로서의 본령을 지키지 못한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부가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의무는 똑같이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면 또 사립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방의 사립대학은 학생제일주의를 표방해야 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학생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받아들여 교육시키고, 졸업한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합니다.

본문: 金成勳 농림부 장관
(자문위원: 김현)

두 번째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지대는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나아가고 평화 사회의 노인성 질환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자원과화대학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에 새롭게 학과를 개편했습니다. ‘건강, 생명, 환경’을 대표하는 강원도의 지역특성에 맞춰 환경과 지역농민중심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유기농업을 연구하는 유기농 생태학과, 식물공학융합학과 등을 신설했습니다. 한강수계를 보면, 상류는 강원도 영월, 정선, 평강, 홍천, 강릉, 원주에서 유입되는데, 이들의 오염을 막기 위해선 유기농·유기축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 강원도 농민의 유기농 식품을 애용하고 많이 주문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국민의 식수를 깨끗하게 해주는 대신 농민도 살리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친환경유기



나라 대학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 저 역시 원주시 호저면의 여섯 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무료진료활동, 유기농업 교육 등 교수와 학생이 직접 나서서 지원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 제도를 놓고 정부와 전면대치 하다 여론이 서울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면서 잠시 잠정해졌습니까. 대학 선발, 자율권, 재정 문제에 대한 金총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세요.

나라 대학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 저 역시 원주시 호저면의 여섯 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무료진료활동, 유기농업 교육 등 교수와 학생이 직접 나서서 지원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 제도를 놓고 정부와 전면대치 하다 여론이 서울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면서 잠시 잠정해졌습니까. 대학 선발, 자율권, 재정 문제에 대한 金총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땅값이 비싸 생산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백ha 이상을 소유한 외국 농가와 경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을 살리려면 ‘품질과 안전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세계 각 나라가 앞다투어 기존의 농법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농가의 소득 향상을 꾀하고 농부들에게 농약을 덜 사용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 그런데 유기농업을 할 경우, 수요량을 커버할 수 있소.

가격을 낮추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초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유통경로로는 다양하나 역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효율화 및 차별적 유통망 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에선 유기농업을 지원해주며, 직접식물재배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은 유기축산, 유기농자재, 유기질 농약 등을 직접 개발, 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안전성으로 경쟁력 높일때 1校1村운동·친환경 유기농에 관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유기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지역주민들이 유기축산을 시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금문제입니다. 또한 유기축산에 대한 교육도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 휴가시절으로 올해에도 동해에서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요.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어떤지요.

강원도는 생명사상과 생활철학통합 운동의 발상지입니다. 농촌이 환경·생태·문화·역사·전통·먹거리 등을 묶어 어메니티(amenity :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것)까지 일과 즐거움, 문화시설)를 형성해야 합니다. 農·山·海상의 어메니티와 도시의 웰빙수요가 강하면 도시민들은 언제라도 가족들과 함께 쾌적한 환경과 청정식장이 생산되는 농촌을 찾아옵니다.

— 우리 시에 1校1村운동이 화교별로 확산되면서 대학과 농촌마을이 결연하는 1校1村운동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데요.

2년전 당시 정경현 玄明宮상근부회장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그래서 직접뿐만 아니라

— 그러면 이제 농업전문가로서, 그리고 전직 농림부 장관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올해도 경제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외국농산물 수입 급증과 쌀 시장 개방 압력 등으로 국내 농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파고를 넘기 위한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부가 원래,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고, 쌀 시장 완전개방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의 무역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을 매년 늘려야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합의를 할 때 일단만큼 국가이익을 낼 수 있는지는 문제는 그 나라의 협상력과 외교력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이번 협상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또 농산물 관세율에 대한 저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쌀 이외의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습니다. 쌀만은 제외돼 10년간 관세와 유예를 하기로 합의, 올해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 지난 95년 11월 11일 농민의 날에 친환경유기농업 정책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땅값이 비싸 생산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백ha 이상을 소유한 외국 농가와 경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을 살리려면 ‘품질과 안전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세계 각 나라가 앞다투어 기존의 농법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농가의 소득 향상을 꾀하고 농부들에게 농약을 덜 사용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 그런데 유기농업을 할 경우, 수요량을 커버할 수 있소.

가격을 낮추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초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유통경로로는 다양하나 역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 효율화 및 차별적 유통망 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에선 유기농업을 지원해주며, 직접식물재배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은 유기축산, 유기농자재, 유기질 농약 등을 직접 개발, 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유기농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각종 세대의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농가에서 텃밭, 고추장 등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10억원 이상의 사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 대기업 배부른 꼴이 되는 거죠. 다른 규제는 풀어주면서 왜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른 식물은 각종 식품위생법에 걸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관 재임 당시, 농·축협을 통합하여 수세폐지를 이뤄냈으며, 친환경농업 관련 법안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등 '농정개혁'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능력에 비해 너무 큰 편지라고 그 기간 동안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면서 구조조정을 감행했는데 지금도 그 분량에 참 미안합니다. IMF 상황에서 농민들은 허약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름을 빼고 군살을 줄여 서서간에 조금씩 양보해야 할 일이 보였으니까요.

통합하고 난 뒤 수세를 폐지했습니다. 수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의 양을 조절, 물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농인기구를 하나로 통합, 기존 작업들의 처우와 복지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일부 부로 채권 등 여러 혜택이 돌아간 거겠죠.

농업기반공사를 탄생시키고 수세를 폐지하니 농촌에선 산불이 나고, 서해에선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병의 스트레스도 잇몸 염증이 심해져 저금리 위해 이불 4개, 그 다음엔 이불 5개기 몽땅 빼버려야 하더군요. 암사 불을 하고 출근하는데 도저히 이태션 안되겠다 싶어 사표를 내고 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죠.

— 모교에 대한 애기로 넘어가지요. 특별히 숭실장님께서 농업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선진에서 일제시대부터 생활협조조합 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분류돼 4년간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만주로 피난해 생활했는데 해방이 되니까 배를 타고 무작정 38선을 건너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선진께서는 농촌운동을 기

속하셨고, 저 역시 청소년 농촌학습단체인 4H(head-hand-heart-health)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 음엔 농민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학입시를 앞두고 버리도 실패 걸 부친께서 무전여행이나 갔다 오라고 용돈을 조금 주시더군요. 며칠동안 여행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농업전문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입학시험

평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서울의 각 대학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1975년 4월 11일 '한일' 회원이자 축산학과 재학생이던 김성진 군이 모교 농대 교정에서 활보자 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농사단위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이후 '농민'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총장께서는 '선진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모두

고, 진무가 아니면 전부고, 특이 아니면 백이어서 합니까.

— 여러 가지 직합들을 갖고 계시니 매우 바쁜실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책과 건강 유지에 위해 특별히 하시는 운동, 취미활동이 있으신지요.

시민운동, 농민운동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신 있어하고 또 좋아 하는 분야에서 내 시간과 돈을 내고 참여하는 것이 심신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건강에는 해로운데 초창간 농가들을 생각해서 담배를 피웁니다. IMF시절 염연초 생산 농가들을 위한 적이 있는데 모두 땅에서 자라는 참배였습니까. 그래서 저가 건강에 해로운 한 염연초를 피우겠다고 농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염연초를 애용합니다.

— 아오가 農福과 月浦, 두 개인 것으로 압니다. 각각의 사연이 궁금합니다.

'農福'은 대학시절 농촌운동하면서 한일서클 친구들이 붙여준 것이고, '月浦'는 1987년 柳泰成선생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겁니다. 3년 동안 FAO(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 경제학자로서 활동하다 귀국, 미국 유학시절부터 수집해온 세계 각지의 소리와 고동류 등 3천여개 접을 전한 목포에 있는 한도반물관(한 자연사박물관)에 기증했다니 온사께서 그 뉴스를 보시고 '달이 높이 떠서 자야로만 빛이 푸욱에 가득하구나' 하시며 '月浦'라고 지어주시더군요.

— 마지막으로 평소 동문의 한 분으로서 서울대 총동창회에 대해 생각하시는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캠퍼스에서 학장시절은 보냈기에 학과동창회와 농대동창회에는 지위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총동창회에는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총동창회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각 단과대학과 학과동창회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해주는 동시에 이류의 각종 행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줬으면 합니다. 또 모교와 연계해 평생교육을 만들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설해 졸업 후에도 동문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동문들께서 더 큰 보탬으로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은혜를 갚지 않을까요?

(정리= 裴智媛기자)

장관시절 스트레스로 치아 '왕창' 빠져 농축협 통합·수세 폐지 등 농정 대혁신



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진공을 다 끌어 댔죠.

— 대학시절, 전통적 이념서클인 '한일'을 조직하고 70~80년대 그 유명한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로 시작하는 농민가를 작사하셨는데요, 학생시절에 대한 추억들을 소개해주시죠.

이념서클을 만들긴 했는데, 이념적인 색깔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후 정말 농촌을 위해 봉사할까요(?)가 되있는 학생들을 모아 농사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런 뒤 우리의 뜻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노리로 탄생한 것이 농사단가입니다.

졸업 후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중안대 교수로 막 부임할 때 즈음,反독재 무

남대로 풍을 세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21세기에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이들을 뛰어넘는 '상식과 세력'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해 최근 '선진화정 책운동'이라는 단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영국은 CXC원칙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표방해왔습니다. 감동이 생기면 첫째 Common sense, 즉 상식적인 입장에서 먼저 해결하고, 둘째 Conference, 토론과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Compromise, 조금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종국정부 역시 政府府議, 이견은 일단 뒤두고 의견을 같이한다. 분야부터 협력한다라는 삼리추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나라는 100이 아니라 200



“노년엔 무엇보다 친구가 필요하죠”

건강, 외로움, 품위 행거줄 공동체 건설할 것... 노인 말겠다 모셔가는 “탁노 서비스”도 실시



조기성 회장(왼쪽부터 60명)

“전화번호도 구구팔팔(02-357-9988)입니다. 99세까지

말할하게 살자는 뜻이죠”

11.12대 국회의원(민주당)과 정무장관(1987)을 지낸 조기성(趙基成, 68) 회장은 요즘 실버타운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서울도심에서 자동차로 15분쯤 걸리는 은평구 노변동 91와7뒤쪽으로 아늑한 동산이 공원(녹색서공원)으로 붙어 있는 이곳에 요즘 공사가 한창이다. 약1000평 부지에 지하 4층, 지상12층, 연면적 4600여평 규모로 짓고 있는 건물은 조 회장의 아산자인 실버타운 ‘달라시온’ 오는 가을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손질이 분주하다.

정치관에서 정춘을 보낸 조회장이 활동기에 실버타운 건설에 나서겠다는 남다른 철학이 숨어있다.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가증화되면서 자녀교육은 과비용인 반면 노인은 버려진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세대는 노인 인생을 즐기기 위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세대는 자녀교육이 자상명제였습니

다. “나는 굶주려도 자식만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인제거발로 이어지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실버타운은 경제발전을 일케한 노인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초회장이 생각하는 실버타운은 단순히 노인이 모여있는 마을은 아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인생을 산 노인인 노년층을 품위 있게 보내고자 하는 곳입니다.”

노년층 부지는 1968년 서울거주취향에 구입한 100여평에 주변 땅을 사서 보았다.

실버타운을 도시에 짓는 것에 대해 조 회장은 “노인은 각종 의료 편의시설이 발달한 도시에서 비슷한 연배의 친구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며 어울려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도 담겨있다. 그 역시 정계은퇴후 고향(전남 영암)에서 10여년간 농장생활을 했으나 한적한 시골생활에 한계를 느꼈다. 그는 노인의 공동생활은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가 선거를 해봐서 알아요, 선거가 끝나면 건강을 망칩니다. 저는 혼자 걷는 것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책하다 보면 수동수에 갇힌 배배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달라시온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골프, 여행, 와인, 국악 등 다양한 친목 모임을 만들어 함께 즐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입주자에 참가 건강검진 실시
실버타운에서 배움을 수 없는 서비스는 건강관리, 클라시온은 인근의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일산병원과 의료협약을 맺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 주차의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의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영노병클리닉, 비만클리닉, 요통관절염클리닉 등도 갖출예정.

특히 거실과 화장실에 설치된 음압동체감지기는 갑작스런 발명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 회장은 “입주자가 갑자기 쓰러져 비상벨조차 작동시키지 못해 움직이지 못해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 비상대기요원이 출동한다”고 말했다.

또 5층 규모의 노인전문코리닉 ‘클라시온 클리닉’ 역시 이곳의 자랑

거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탁노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자역시 최고 수준을 제공할 생각이다. 조회장은 “전문영양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맞춤 식단을 관리하여 맛과 건강을 함께 챙겨줄 것” 이라면서 “별도의 특별 요리를 주문하면 특급호텔 출신 요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레스토랑, 창도쥬얼링, 시우나실, 노래방, 갤러리, 도서관 등 여가시설을 갖추게 된다.

클라시온의 입지에 대한 자랑 역시 끝이없다. 무엇보다 주변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 조 회장은 “건물 뒤쪽 1만여평의 공원은 골짜기 많지 않아 노인이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후원(後園)처럼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신책론이 조영시설을 설치, 입주자와 인근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전망도 좋은 위치에 따라서는 북한산, 인왕산을 볼 수 있다.

교통도 소망도 편리한 입지여서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도 인근에 있다.

평면은 43평, 12세대, 36평, 75세대, 29평, 36세대, 22평, 14세대로 총 137세대. 조 회장 역시 이곳에 저처를 마련했다. 이곳은 공용시설이 많아 일반 아파트 보다는 전용면적이 작다.

조 회장은 “하지만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특급호텔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면서 “입구도 서울 시내의 일부 비즈니스 건물의 로비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용 방법은 모두 임대 방식. 조 회장은 “등기 분양 방식은 취득세, 등록세가 있고 자녀 명의로 등기할 때 상속세 부담도 발생한다.”면서 “반면 임대방식은 세금부담이 없고 퇴소할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어 환급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비용은 크게 4가지. 우선 입주보증금과 생활운영보증금(사용료)을 일시불로 낸다.

임대보증금은 7개월 때 100% 회관을 준다.

입주자금은 만60세 이상, 배우자는 60세미만이여도 된다. 조 회장은 그러나 실버타운에 대해 일반인의 오해가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인이 함께 모여 보다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시온은 앞으로 건배할 때 9988(구구팔팔)을 외칠 겁니다. 하하.”



“어느 연구소 못지 않게 인력·시설에 투자”

화제의 동문 **尹錫金** 웅진그룹 회장

인재를 뽑고 활용하는데 뛰어난 웅병술의 귀재라고 불리는 웅진그룹 **尹錫金**(AMP 27기)회장이 모교에 거액의 산학연구기금을 내었다. 중견그룹으로 흔히 알려진 R&D투자를 단행,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尹錫金**은 만나 지식산업 및 환경산업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웅진그룹이 모교와 함께 이룩할 비전과 **尹錫金**의 성공신화, 삶의 철학, 어려웠던 어린 시절 등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담 : 본보 **서훈재**는설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창의적이었죠.

— 웅진뱅크비과 미디어, 복선 등의 지식사업의 그룹 내 규모는.

현재 규모로는 웅진코웨이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식사업 분야도 매출이 5천5백억원이 넘으니 작은 비율은 아니죠. 과거에 대비 2만평 규모로 동양침대의 도서 유통시스템인 복선을 설립했는데 일본의 도서 유통시스템보다 규모도 크고 시설도 훌륭합니다. 이곳에 4천평 이상 규모로 생크림 분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8백명의 직원이 그쪽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과주 출판단지 조성도 그렇고 유통센터 건축도 오래 걸렸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도와주셨죠.

— 이번에 그룹 차원에서 2백60억원이라는 거액을 서울대에 출연했는데 산학협력 R&D투자로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투자하신지요.

인재 확보 차원이죠. 평소 산학협력력이 어떻든 기업 발전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학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회사의 부족한 부분이 기술인데 이 부분을 보완해줄 산학협력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서울대에 1백80억원의 발전기금과 산학 연구 기금으로 15년간 연 5억원씩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또 연구 동을 지어 기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안으로 연하의 예산이 들어갈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백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토포탄 건물용 지어려고 합니다.

서울대 연구단지 조위 5대 대기업 회사만 입주해 있는데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연구원과 학생들이 이들 기업 관계자들에게 위촉되지 않도록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줘야 합니다. R&D센터가 서울대에 있다면 대외 인재를 확보하기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울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할 분야는.

물과 공기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는 만큼 이 분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웅진코웨이와 공주시 유구천의 오염 실태 파악과 정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축산 폐수로 오염에 아무 짓도 할 수 없게 된 이곳을 정화하는 일과 축산 농가의 하수처리 지원 사업 등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소위 환경문제, 더불어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봅니다. 서울대와의 협력에 통해 장기적인 환경산업 중심의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웅진코웨이의 주력 품목이 공기청정기와 생수이기기도 하구요.

— 웅진그룹이 타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데 굳이 서울대를 선택해 이렇게 큰 액수를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웅진코웨이는 KAIST, 연세대, 한양대 등 여러 대학과 산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들 대학과는 냉대 등 부분적인 기술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지는 못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서울대와 좀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큰 범위의 환경오염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대 쪽에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적어 좋은 기자재를 사용하기 어렵는데 훌륭한 시설을 갖추면 도움이 될 테니까요. 교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여러 가지 연구 노하우 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웅진이란 그룹명은 교향(공주의 옛 이름이 웅진)의 지명에서 따온 건가요. 창업할 때 사명에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요.

저를 사람을 시작할 때는 ‘배운 안배내서 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영어가베트 타이프를 제작하는 출판사를 하던 중 우리 책을

을 대서서 읽으라고 하지요. 한결 읽었거든요. 교향 이름에서 따왔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잘든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 ‘어린이 마을’이 그야말로 대박이 나

산학협력, 기업 발전의 절대적 요소 운동권 동문들 채용이 성공의 비결

만들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 마을’이라는 점점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의 것을 알리자는 뜻이었던 만큼 농촌에서 소, 돼지, 닭 키우는 것부터 낚시, 산과 강 같은 자연을 소개하고 우리 역사를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어린이책 대부분의 서양책으로 그림도 서양 것 일색이던 당시 한국적인 책이었죠. 우리 것을 알리고 내놓고 그려, 사진 보든 우리 창작물로 만들자고 사색한 건데 호사님이 마음에 걸렸습

니다. 그래서 사명도 우리 것으로 짓기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조약배, 한우리, 한밭 등 많은 이름이 나왔는데 마땅히 게 없었어요. 당시엔 출판사뿐이었지만 산학 그룹도 경영할 수 있도록 무거워 있는 이름

을 짓고 싶었어요. 당시 정모한 아이디어 중에 ‘웅진’이라는 게 있었네요. “웅”하고 발음해보니 힘도 있고 “진”도 괜찮았어요. ‘웅’이 품유 상하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구요. 지금도 웅진

그룹 형성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 마을 성공엔 특별한 인력 활용도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린이 마을의 구성이 제가 했습니까. 하지만 당시 편집자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까. 작은 출판사에서 좋은 편집자를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으니까요. 웅진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라고 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대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서울대에서 더모하듯 쫓겨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엔 사정만 데모하다 학교에서 재직당하던 직장들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덕분에 저희 회사가 서울대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책을 만드니까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 출판사들은 경영이 노련한 편집자들을 데리고 책을 만드니까 때문에 구성이 비슷했죠. 서울대 운동권이었던 학생들은 머리도 명석하거나 모르면

— 보전복지부에서 이웃돕기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으셨고 미국 시애틀에 있는 셋별 한국문화원에 건립기금 10만 달러의 수당 권의 책을 기증하는 등 남다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미국 시애틀 한국문화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곳에서 선물을 새로 지어 교포 2세와 한국 입양아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가르치려 하고 있었어요. 문화원 주관으로 미국을 순회하면서 한국전통문화 공연도 펼치는데 현지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건물 짓는데 10만 달러를 지원했고 책도 1천여 권 이상 보냈지요. 우리 쪽이 한국의 자연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 교포 2세대들이 좋아해 정기적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포장은 못지 않게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공주시에서 추천한 도모이예요. 성공한 기업인들이 교향에 기부하고 봉사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공주 유구천 정화 캠페인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죠.

어렸을 때 가난해 책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사서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제대로 못 읽는 세

인타래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업을 시작하면서 공주 읍면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책을 보냈지요. 한 때 책을 지극히 보내니까 국회의원에 참여하려 했는데 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상관없이 책을 계속 보냈습니다.

또 가난한 농촌 가정에 송아지를 보내 대학 학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실 패가 더 이상 2번 기회씩 보냈는데 그런 것이 공적에 된 것 같습니다.





—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겠는지.

1968년 졸업하자마자 음료수 공장을 시작했죠. '봉아구본산'이라는 음료수를 만들었는데 밑전도 적인대 기술도 없어 갈방 망해버렸습니다. 사업이 망하 갈 곳이 없어 아무 연구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리고 브리태니커사 세일즈맨으로 들어갔습니다. 27살 때였는데 시작하고 보니 세일즈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첫 달부터 남들은 한 달에 한 질 팔기도 어렵다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40질이나 팔았어요. 상대방이 누구든 당당하게 다가갔지요. 브리태니커사에서 세계적으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윌리엄 벤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 그래도 뭔가 비결이 있었겠지요.

세일즈를 시작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지나니까 안되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고객을 만나기도 전에 '안될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지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야. 저렇게 출세한 사람도 내 청음을 부러워할지 몰라.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 수 있잖아'라고 마음먹었지요.

—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시더군요.

'안 된다. 축축다'라는 생각은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 더우면 '더워서 참 좋다. 노폐물도 빠지고 살도 안찌고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죠. 세상에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라톤할 때 앞서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 거야'라고 생각하면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일즈를 하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긍정적인 사고를 마음 속에 붙여넣는 거지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운이 좋아. 저 사람은 날 반겨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반겨줄 거야'라고 생각하며 계속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참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이런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죠. 그러면 어느 새 희망이 생깁니다.

80년대 초부터 골프를 했어요. 일반인 고객들을 상대해야 했는데 다들 골프를 즐겨드리 않았기 시작했지요. 오라 찾는 데도 참여 어려워요. 숨은 전엔 양주 1병쯤 마셨는데 지금은 매일 와인 2잔 정도로 즐겼습니다. 건강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운동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정도지요. 좋은 생각이란 사람, 세상, 국가, 정치 뭐든 좋게 느껴오는 것입니다.

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 자연스럽게 부가 나눠지리라 봅니다. 또 그 기업이 낸 세금으로 점차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분배에 너무 치우쳐 생각하다 보면 가진 사람은 배운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 사회적 위화감만 더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 일자리 창출이 관련이 큰 말씀이신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켜야지요. 이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워낙 약화돼 일자리를 더 이상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업은 더욱 활성화해 고용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러하면 일부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이런 사실을 통한 전시산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내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고용도 증대되고 사회도 안정될 것으로 봅니다.

가난했던 시절 생각나 이웃 도와 긍정적인 사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왜 바로 창업할 생각을 하셨는지.

취업을 위한 건 공부에 소홀한 까닭도 있었는데 이브라이트하노라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음료수 대리점도 하고 창경궁에서 사진 찍는 일도 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만큼 먹고사는 일이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이브라이트를 하는 동안 창입도 괜찮다 싶어 50만원 정도 마련해 음료수 공장을 시작한 겁니다.

— 취미와 주력, 건강 비결을 알려주시죠.

— 요즘 국내 경제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정도 성장했으니 분배에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과 지나친 분배 논리는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문제가 있겠죠. 분배를 위해 어느 한쪽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무죄 부문의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는 생산적 분배가 낫겠지요. 기업이 잘돼 임금을 더 주고 고용을 확대해 많

— 최근 서울대 입시안과 정부 정책 사이에 갈등이 생겨 문제가 됐습니다. 국내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교육 정책은 어떤 것일런지.

최근 鄭容憲총장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에는 국제 경쟁時代に 맞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가 우수한 인재를 뽑아 키운다는 발상은 맞는 것이지요. 우수한 인재를 많이 뽑으려면 평준화보다는 경쟁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우수한 인재가 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비엔신 데 긴 시간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차용호기자)

동문기자 취재후담

“꼭 한번 쿠(Lee Ku)를 보고 싶었는데...”

아스팔트도 녹인 기세로 폭염이 내리쬘던 지난 7월 24일 일요일, 조선 왕실의 마지막 직봉으로 일컬어졌던 왕손 이 구(李玖)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현장 취재에서 돌아온 기자는 더위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가 돌아가는 사무실에 들어 서서도 한참이나 기면 호흡을 자정하지 못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취재기사가 나올 것을 기사가 손바닥 출고해야 할 테스크로서는 일단 현장 분위기가 어떨는지부터 파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새에 인파가 얹히나 보았는가를 물었다.

“영결식이 치러진 경복궁부터 노새를 지난 경로까지 경찰차순으로 3편명 정도요. 세상에, 이 더위에... 게다가 전복 다카들을 깨워서 찍느고 난리여서 사진기자들이 오호라 비집고 싶 불이 없더라니까요.”

1919년 고종 48세(因山)를 촬영한 사진을 보아도 왕의 상의를 구경하기 위해 구름 떼처럼 사람들이 뿔뚝이 났었다. 차가워진 이때 땅에 머리를 푹고 호랑이가 으르렁 내뿜는 대서 권경지 여왕이라도 온 듯 여사의 한 손건을 가볍게기 위해 사진기를 들어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졸리!” 여사는 천직했어?”

“아뇨, 유족이 야기해서 초창하지 않았다는 거 전수 아예 다들송영원의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졸리아 박물(82세), 황세는 이 구 씨가 결혼했던 유일한 여자이자 전처인 미국 여

인, 그녀의 존재는 이 구 씨가 한국 찾아오던 도록 도심의 호텔에서 홀로 순직 재발견된 순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미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황세의 왕자라는 운명에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구 씨에게는 신난한 삶이 예정과 있었다. 그런 그에게 졸리아 여사는 한 인간이 기질 수 있는 사랑의 기쁨을 알게 해준 존재이자 그의 가시밭길 같은 삶에 더 깊은 고뇌를 드러낸 슬픔이었다. 그들은 1958년 미국 뉴욕에서 만나 결혼했고, 82년 이혼했다. 이혼은 그를 부부간의 선택이 아니었다. 애당초 벽안의 황세는 비가 따르지 않았던 전주 이씨 대종종원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자 ‘황세의 직통을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내놓고 이혼을 종용했다.

이 구 씨의 사진이 도쿄에서 발견된 이후 꽤 오랜, 편집과정의 전화가 걸려왔다. 졸리아 여사의 소재확인이 가능한가, 불과 한 달여 전, 한국영화의 할리우드 진출가 능성을 북돋워준 영화인, 기자들이 당시 ‘졸리’였던 한미다가 단서가 됐다. “할리우드에 내보낼 첫 영화는 졸리아 여사 일대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영화인 기자들을 호출해 졸리아 여사의 소재를 알아보라고 한지 10여 분 후 보고가 들어왔다.

“졸리!” 여사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인터뷰는 절대 안하겠다고요. 제자자 사람들한테 부음 듣고 이렇게 만났답니다. 죽

기 전에 이 구 씨를 꼭 한번 보고 싶었다. 만... 이 말 한마디만은 꼭 보고 싶었다. 당장은 그동안 잊어버렸네요...”

한시도 인터뷰를 거절하는 졸리아 여사를 겨우 수없이 일년 영화제작사가 촬영한 한 최근 사진만을 보는 것으로 하고,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극본으로 쓰고 있는 작



鄭恩玲

(인류85-88)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가에게 한 달을 보태로 기사 작성 지시를 내렸다. 영화 담당기사가 쓴 ‘기사의 데스크를 보며 가슴에 남은 한 구절은 “꼭 쿠의 장례식에 가보고 싶다”는 졸리아 여사의 소망이었다.

졸리아 여사의 근황을 소개한 동아일보의 보도 직후부터 각 신문과 방송은 다들 졸리아 여사 근황을 보도했다. 졸리아 여사는 “더 이상 여론의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당스럽다”며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특종보도를 출처라고 할 수는 없

었지만 그것이 결국 “꼭 한번 내 남편 쿠(Lee Ku)를 만나고 싶다”는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이 되나 않았었다.

7월 25일자 신문에 실린 영결식 기사에는 결국 졸리아 여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한 줄이 실렸다. 그런데 그 날 밤, 이튿날 대담된 신문의 마지막 반까지 재작성하고 귀가해 부실고 전 컴퓨터 모니터 위로 노새를 불러온 한 외국인 할머니의 사진이 나왔다.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보행보조장치에 의지해 인파에 섞여 이 구 씨의 노새 모습을 지켜보던 졸리아 여사의 모습이 한 케이블 뉴스채널에 담긴 것이었다.

우리 기자가 낙종을 했구나 하는 순간적인 냉랭감보다 더한 무언의 충격과 치밀이 있었다. 타자에 의해 이별하고, 타인의 눈이 두려워 서둘러 노새 사라지듯 떠나야 했던 졸리아 여사, 예수를 찾게 되게 시달렸는 사람과 이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정태준위원장의 측의 명분이 그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운 언론이나 독자들의 공경준도 그녀가 ‘노새’를 보고 싶었던 마음보다 더 극진했는 것인지 여사를 좀여지고 살아있었던 두 사람의 이름이 새삼 가슴에 여 닿았다.

정태준을 만나면 “당신은 행복했나요?” 라고 묻고 싶었다면 졸리아 여사, 이 구 씨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심했다가 그의 쓸쓸한 죽을 추 이도록 브라운관 세상은 한층 더 그늘이 깊어졌을지 모르겠으나, “당신들은 행복했나요?” 라고...

동문기자 취재후담

“가족만 죽지 않았다면 웃을 수 있다”

아프리카나에서도 그랬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죽는 사람만 아니면 그들은 웃었다. 내가 신기 한 듯, 우리가 가려진 ENG 카메라와 다른 삼바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지만 나타나는 그들은 모여들어 우릴 둘러싸고 잊음을 흔히 드러내 보이던 웃었다. 그래서 인터뷰가 전 통역을 통해 이런 말을 꼭 했다. “웃지 마시오! 당신들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잠이 필요하다.”

“먹을 건 있나?”

“술진 않는다.”

정말 그랬다. 지진 해일로 속대밭이 된 스페인에서조차 이불, 필자와 카메라 기자는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동부 해안으로 향했다. 해안도로가 모두 파괴됐기 때문에 내륙을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처럼 고속도로가 끊어 있다면 세 시간 남짓 하곤,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우리 국도나 지방도로나 사진이 좋지 않았다. 구불구불하고 건조하고 폐인 길. 그 절망적인 속을 열 시간이나 달려 동부 해안에 도

착했다.

그 중간에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이, 지진 해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웃는 지 알 수 없었다. 3도약이 가능하다는, 끝없는 펼쳐진 푸르른 논, 그 자체가 하나의 비경이었다. 그리고 어디나 날려 있는 야자 나무들. 갈증이 나거나 배가 고프면 아무 나무에나 마치 완충처럼 올라가 야자열매 몇 개 따다 먹으면 된다.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는 그들의 말이 실감났다. 그래서 웃는구나... 가족만 죽지 않았다면 웃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지만 동부 해안 카니야라는 작은 어촌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곳에 정박 남아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2백80명이 한 구덩이에 묻혔다. 그나마 가족을 묻은 사람들은 행복한 표. 실종된 사람만 1백30명이 넘었다.

리베르타도네는 두 살배기 아들과 여섯 살짜리 딸을 마을 시장과 함께 잃어버렸다. 갑자기 밀려온 엄청난 파도에 바로 눈앞에서 죽었다. 그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다”고 했다. 자식들 묻은 거 아니라 리베라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 묻은 것

같다며 울었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이방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자식들은 부모의 몸을 세신 안뜰을 다들까.

그의 형은 아기를 낳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만삭의 부인을 잃었다. 자신도 수습하지 못했다. 병원에 있던 환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다.



全永祐

(사회89-93)

MBC 사회부 기자

20대 여학생 리베라는 아버지를 포함해 4명의 가족을 함께 잃어 버렸다. 고향은 그 여자에게 이제 악몽의 현장인 뿐이었다. 리베라는 울부짖었다. “난 고향을 떠날 거예요. 여섯 살 가족들 생각이 나서 못 살겠어

요, 난 떠날 거예요.”

꽃꽂이 시선을 파르는 구덩이들이 즐비했다. 소수 민족인 타미족 여성은 자처하는 이도 없이 화장됐다. 열 명이 묻힌 구덩이 한 줄 열 곳. 스무 명이 묻힌 구덩이엔 풀 스무 포기쯤 실었다. 그나마도 세상은 아니었다.

남부 해안도시 한만부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몇 만명일 수도 없었다. 무너진 건물들 치를 때 여기저기서 시신의 몸이 드러나왔다. 거리에는 사체 찢는 냄새가 풍겼다. 상흔을 가족을 찾아 사람들이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했다. 종일 울면서 “누가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다니는 게 하루 일과와 같아 라고 했다. 부모를 잃은 어린 계집아이는 부정한 얼굴로 첫머리 남동생을 얻고 다녔다.

난 스페인에서 55년 전 우리를 보았다. 여짜면 동생을 잃고 다는 계집아이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리베라 가족이 남아 있는, 리베라 마을에 카베라 안에서 한자로 웃는 사내가 이모 모습이 이들과 다름. 내가 그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미군들, 사냥 포획자들은 우리를 보았을 거다.

스페인에서 “부러짐이 많아서 땅”이라는 뜻이다.

건강을 직접시다

50대 출연자 폐질환 검진 필수

요즘 저명인사들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모습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폐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폐질환의 검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는 폐기능 검사와 흉부촬영, 흉부CT 검사입니다.

폐기능 검사는 폐활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검진을 받으신 경우 운동 시에 숨이 예전보다 많이 차는데 폐활량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흉부촬영이나 심장검사 등을 통해 심폐질환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질환의 증거는 없이 운동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폐는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운동할 때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함으로써 현재 심폐기능이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폐질환의 증거 없이 운동능력이 떨어진 경우, 평소의 운동부하에 따른 제력 감소의 가능성이 큽니다.

흉부촬영, 흉부CT검사는 폐렴, 폐결핵, 폐암 등의 폐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며 늑간 또는 흉주의 골절상, 심장 비대 등의 이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 중에 폐결핵 혹은 폐에 혹이 있다고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많은 분들이 자신이 폐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폐암의 일부가 작은 폐결핵의 형태로 시작하지만 폐결핵이 있다고 해서 모두 폐암인 것

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폐결핵은 양성입니다.

그러나 일부 폐결핵은 악성의 가능성이 있고 흉부CT에서 발견되는 폐결핵은 몇 mm크기의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에서 발견되어 지므로 CT로만 폐결핵이 내암인 지를 임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



崔勝浩

(의화89-95)

모교 병원 강남센터

호흡기내과 교수

습니다. 따라서 작은 폐결핵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게되고 결핵의 변화에 따라 조직검사 등의 추가적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폐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50세 이상이면 정기검사의 출연력이 있거나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흉부촬영 및 흉부CT검사를 통한 폐암의 조기검진이 권유됩니다.

(연락처 : 2112-5648)

자의 건강법

손쉬운 五體投地로 몸짱 유지

金鍾郁(무역63-70)우리금융그룹 부회장

요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각종 식이요법, 운동기구, 건강식품 등으로 해마다 혼란스러운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건강검진이 돈을 쓰는 알파 정비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神이 인간의 몸을 오묘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 유지관리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고 특히 인간의 몸 자체를 훌륭한 운동기구로 만들어 주신 점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고 못 살고 하는 명(命)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神의 영역이고 다만 사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신신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 각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비용이 적게 들면서 안전하고 몸매까지 볼썽으로 가꿔 주기에겐다 추천할 수 있는 것이 '五體投地'입니다. 제가 오체투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지난 97년 노인선원의 지관선원으로 부터입니다. 이후 8년간 실천해 오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체란 두 부부와 두 팔 그리고 머리를 합하는데, 먼저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발을 땅에 대고 그 다음에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절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우리 나라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각자가 절하고 싶은 대상을 정하면 됩니다.

이 오체투지는 요가의 기본 동작이라고 하며 거의 전신운동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구부러면서 옆 드릴 때 팔, 다리, 힙의 관절이 다 접히고 배 근육 및 내장도 접하며 등도 굽으면서 운동이 되고 일어 서면서 각종 관절이 펴지며 배 근육과 장기 등도 스트레칭이 되어 훌륭한 근육운동이 됩니다.

또한 자기 체중을 두 다리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다리 근육도 튼튼해집니다. 보통 성인 남자 체중을 60~70kg 여자 체중을 50~55kg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를 1백 배 하면 1백 번 드는 것이고 2백 배 하면 2백 번 드는 것이니 다른 운동기구, 예를 들어 벤치나 바벨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체투지의 속도를 10분에 1백 배 정도를 하면 심장박동이 약 1백10~1백20까지 올라갑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박을 1백 이상 올려놓으면 평생 심장 운동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복합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게 준비할 것은 긴 방식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장소는 방에서나 거실 또는 마루에서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1백 배 이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0배하고 조금 쉬고 익숙해지면 50배하고 조금 쉬면서 숫자를 늘려나간 다음에는 한 번에 몇 백 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체투지를 시작하기 전에 방석 위에서 무릎을 꿇고 신에 대한 감사와 소원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 있더라도 보약이 침과가 있듯이 매일 어려움을 참고 기도와 오체투지를 행해야 자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실행하시면 자신의 건강 외에 행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매일 실행하시어 건강과 행운을 함께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 가족

襄命仁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 대표변호사

“동생·아들·며느리·사위 전 공은 달라도 봉사·화목정신 잃지 않는 색깔은 하나”

“나이 들면 권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림
바뀌어가요. 민발치에서 자녀들이 건강하
게 사는 모습 지켜보고, 또 물려날 때를 알
고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집 앞 산책로를
걸으며 노년을 즐기며 후배들이 조안을 구
하러 오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원로’로 남고 싶어요.”

평생을 법조인으로 걸어온 襄命仁(법학
52·56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 대표변호사·
문화 부회장)동문은 그동안 검사로 30년,
법무부 장관으로 3년, 로법 설립자이자 대
표변호사로 20년동안 활동해왔다. 또 지난
2000년에는 법대총장직을 역임하며 제1
회 바둑대회 개최, 장학기금 확충 등 동창
회 활성화를 위한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사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제 생활이
꽤 화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의 대소사를 조사하
고 해결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나며 아근은
기분이고, 지방근무도 잦아 그 흔한 가족나
들이 한번 제대로 못 간 ‘부족한’ 아버지입
니다. 고단게도 아내가 그러한 저의 생활을
이해해주고 자녀교육과 집안 일을 완벽하게
도맡아 주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죠.
아쉬운 점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자녀(2
녀1남)들의 학교생활이 어떤지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지금은
장녀와 장남 가족이 근처에 살고 있어 자주
왕래하며 손자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남1녀 중 장남인 襄命仁동문, 3선 국회
의원을 지낸 첫째 남동생 襄命國(국문62졸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동문과 현재 미
국에서 사업가로 활동중인 둘째 남동생 襄
命穆(경제58-63 前장학관실 회장)동문을
비롯해 형제들이 각자의 재능을 살려 각 분
야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부친

故 襄東守翁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고집스
러운 엄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

전행적인 선비정
신으로 시골에서 농
사생활을 하던 부친
襄東守翁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자
녀들이 중·고등학교
를 다니는 동안 함께
 공부하며 한의사지
격을 취득, ‘장성한
의원’을 운영했다고
한다.

“한의원을 개업해
도 나를 형편이 어려
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래서 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에 연락 가능한 친척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종일 뛰어다니시는 모습에 그만 목이 메어
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버님의 교육에 대
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 형제들이 이런
큰 발전하고 좋은 길을 걸어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장남 襄命仁(사회복지88·92 Diageo 이
사)동문과 예일대 석사학위를 받고 대학 간
사를 지낸 며느리 具瑩雅(작곡92·96)동문
을 비롯해 민사위 趙垣翔(화학공학80·84
중앙화학 부장)동문과 작은사위 史東熙(농
화학80·84 충북대 농화학과 교수)동문이
모두 모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같은 화과를
졸업한 동문이 한 명도 없는 데다 활동분야
도 학제·경제·경제제·법조계·이공계 등 그
야말로 다양하다.

“우리 집은 대대로 사위들이 모두 어질고



뒷줄 우로부터 襄命仁·史東熙·趙垣翔동문, 앞줄 우로부터 두 번째
襄命仁·具瑩雅동문

착합니다. 세 명의 자녀를 비롯해 저의 형
제들도 중매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는데, 襄
씨 집안에 사침·장가 온 사람들이 모두 성
품이 온화합니다. 사람 팔팔이를 먼저 보기
때문에 전공지식이나 특기는 다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들도 부모님께서 특별히
강요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적마다 내는 색깔
이 다릅니다.”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한 襄命仁동문은 학
창시절 씨름, 달리기를 비롯해 바둑, 골프,
테니스, 정선수양을 위해 망중한으로 배운
서예 등 지금까지도 각종 모임에서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돈독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襄東문은 지난 1982년부터 법
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법조 역사상 처음
으로 법무법인 제도를 신설해 변호사 업무
수행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으며, 재소자 교
화 사업, 출소자 경쟁 보호사업에 많은 힘

襄命仁동문의 서울대 가족

남동생

襄命國(국문62졸)

襄命穆(경제58-63)

사 위

趙垣翔(화학공학80-84)

史東熙(농화학80-84)

장 남

襄命仁(사회복지88-92)

며느리

具瑩雅(작곡92-96)

을 기울여 청소년 범죄 예방과 소년범 선도
에도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장남인 襄命仁은 사회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딱 3년
만 기자로 활동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3
년 뒤 중앙일보를 그만두더니 하버드대
Kennedy스쿨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귀국
해 포스코에서 근무하다 현재 Diageo에서
대외관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못 써졌는데, 襄命仁이 자신의 길을 잘 거
쳐해나가는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
다.”

작은사위 史東熙동문 역시 襄命仁동문처
럼 전공을 살려 농학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을 펼치고 있다. 충북대 산하 식물경관병원
환경재해진단부장, 학내 봉사활동 동아리
인 ‘폴라리스’ 지도교수를 겸하고 있는 史
東熙동문은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
부터 제15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농수산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주목을 받기도 했
다.

“마침 오늘 襄命仁이 생일이라 장남 가족과
오붓하게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襄
命仁동문은 “자녀들에겐 건강한 심신을 가지
고 타인을 배려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
며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언제나 만족
할 줄 아는 삶, 즉 자신의 분수를 알고서
행복해내고 생각하는 자만이 행복할 수 있
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살
아준 아내와 함께 손자들을 만나러 가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다”며 일가에 잔잔
한 미소를 띄웠다. (表)

“봉사활동은 서울대생의 필수과목”

모교 소식

鄭雲煥총장 농활 격려

모교 재학생 7백여 명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북 정읍과 부안에서 농촌 가정 자녀 학습지도, 농사체험 등의 농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치고 돌아왔다. 특히 모교 鄭雲煥총장은 지난 7월 6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천호리에 모교 재학생 농촌봉사활동 현장을 방문, 학생들을 격려했다.

모교는 최근 정책적으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봉사활동을 해야 학점을 딸 수 있는 수업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한편 교내 봉사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엘리트의식’ 대신 공동체 의식과 이타성 등을 봉사활동을 통해 배양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초교육원은 지난 6월 26일 “봉사활동 실습을 해야 이수할 수 있는 1학점짜리 ‘사회봉사’를 내년부터 교양과목으로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단과대별 지장에 따라 교양선택 또는 교양필수과목으로 ‘사회봉사’를 수강할 수 있게 됐다. 학생처도 지난 1월부터 지원해 온 ‘관악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지역 범위를 연건캠퍼스 가 있는 종로구까지 확대하고 지

원역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모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돼 현재 14개 학내 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습지도, 유아 및 어린이 대상 연극 등 문화봉사, 독거노인 등 노년층을 위한 아와 내들이, 복지단체 건물 도색 및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해왔다.

수리과학 수준 美대학 30위권

금융수학·암호학 잠재력 높아

모교 수리과학부 수준이 미국 대학 가운데 30위권 정도의 상위권 수준에 속한다는 평을 세계적인 수학자들로부터 받았다. 또 금융수학, 암호학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달할 가능성도 검증됐다.

자연과학대학 吳世正학장은 지난 7월 3일 “최근 방북한 데이비드

프 아이젠버드(David Eisenbud) 교수님이 수리과학부를 진단한 뒤 미국 대학 내 ‘그릇 원(1~50위)’에 속한다 그중 3분의 2 정도(30위권) 수준이 된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자연대가 국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적학술을 초빙해 학부별 진단을 실시한 것이며 수리과학부가

지난달 말 첫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장을 맡은 아이젠버드 UC버클리대 교수는 미국 수학회장을 지난 수학회 석학으로 현재 세계적인 수학연구기관인 MSRI(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이자,

수리과학부 金鍾煥학부장은 “미국의 수학분야 ‘그릇 원’은 주위다와 사람과 각 25개씩 50개의 볼클래스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대학들도 손꼽힌다”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이란 평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 건립·기증한 미술관 준공

시설·작품 보완하고 내년 개관

지난 1995년부터 추진돼 온 국내 최초의 대학 미술관인 모교 미술관(관장 金鍾煥)이 최근 준공됐다. 관악캠퍼스 정문 일면 부지에 위치한 신축 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설계했고 삼성문화재단이 건립, 기증했다.

건축면적 8백40평, 연면적 1천3백평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3층으로 세워진 미술관은 정문 앞 둔덕의 지형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공중에 떠 있는 거대한 조각 작품을 연상시켜 육중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있다.

그리고 건물 내부는 중앙의 나선형 통로와 또 다른 두 곳의 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순환되는 복합적 기능이 적용됐다.

실격자 콜하스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립미술관, 일본 후쿠오카의 벵스스 원, 프랑스 랑에 있는 콩그레소프 등이 대표작이다.

미술관은 별도의 준공사를 갖지 않고 오는 8월 25일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시설과 작품 보완을 마친 2006년 4월경 개관할 예정이다.

모교 병원 설치법 폐지 논란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도 문제

최근 모교 병원·치과병원 설치법을 없애고, 국립대 병원으로 통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하던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귀추에 따라 모교 병원을 포함한 국립대 병원들의 위상과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진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具鎭會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과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모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7

월 5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회의원이 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서울대 병원은 그동안 사실상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폐지안 제기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모교 병원 成濟勳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은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육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 중앙병원인 의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서울대병원의 기간”이라며 “자본과 같은 움직임은 보건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亨)



좌로부터 鄭雲燦총장, 李泰秀대학원장, 孫一根상임부회장, 金美那관장

박물관

春谷 高義東 40주기 특별전

우리 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春谷 高義東선생의 전시회가 모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모교 박물관(관장 金美那)은 지난 7월 13일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모교 鄭雲燦총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李泰秀대학원장, 金美那관장 등 교내외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 春谷 高義東 40주기 특별전 개막식을 가졌다.

金美那관장은 인사말에서 "春谷 高義東선생의 작품들이 근대 미술사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한번 가져 못한 것이 그동안 큰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유족들과 대학본부들 비롯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을 갖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春谷 高義東선생이 일본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던 1915년에 그린 우리 나라 최초의 서양화인 그의 자화상은 그를 서양화가로 잘 알리게 했지만 1930년대부터 전통 동양화로 전향해 그 후 계속 동양 화가로 활동했다.

高義東선생은 화단의 지도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1918년 한국 최초의 근대 미술단체이

자 민족미술계의 구심체였던 서화협회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미술협회 회장, 국전 심사위원장, 예술원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제활복지대와 교류협약
장에인 위한 숙기사 채용

모교는 지난 7월 13일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한국재활복지대학(학장 張鶴敏)과 상호공조 및 공동연구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모교는 한국재활복지대로부터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자격으로 인력 및 점자교재, 학습기자재 등을 지원 받게 됐으며, 모교는 이 같은 협력을 전국 국립대로 확대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李美那학생처장은 "감의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운 화일에 어려움이 큰 청각장애학생을 위해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속기사를 정식 교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韓格富동문, 의대에 5억 기부

홍부외과학 발전 당부 패척

국내 홍부와과학의 개척자 韓格富(하늬)의 사후에 명예회장(사진)은 노환으로 허겁계 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모교 의과대학(학장 王圭彰)에 현금 5억 원을 기부했다.

노환과 장 파열로 올해 4월부터 모교 분당병원에 입원해 있는 韓동문은 연재부터인가 홍부와과학이 '기부 학과'가 돼버린 현실이 안타까워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오랜 기간 조금씩 돈을 모아왔으며, 60년 지기인 모교 의대 朱植源경교수와 장남 韓秀煥씨를 통해 자신의 오랜 소망을 실현했다.

이날 오후 3시 모교 분당병원 3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王圭彰학장, 모교 병원 成相哲원장, 홍부와 金福順교수와 안 赫교수, 분당병원 姜興植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韓格富씨가 현금 5억 원을 전달했으며, 곧 1억 원을 분당 병원에 기부하겠다는 의정의 뜻도 함께 전했다.

초대 대한홍부와과학회 회장을 지낸 韓格富박사는 1913년 함경남도 정령에서 태어나 1941년 모교 의대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의과부를 졸업했다. 1947년부터 모교 의대 교수를 역임하다 6·25전쟁 후 수복 당시 모교로 돌아오지 않고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부산내 교수로 재직하며 부산내 의대 창

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같은 기간 부산 소재전신자병원 홍부와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국립의료원 개인 당시 상경해 1959년부터 1961년까지 국립의료원 홍부와과 과장으로 봉직했다.

도 韓동문은 1962~1964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장, 1970~1972년과 1976~1979년 두차례 대한의학협회(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보험수가 제정사업, 우리 나라 의류사상 최초의 국제 의학행사인 제7차 아세아아래주의학협회연맹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당시 현안였던 의류계 난제를 타고난 근면성과 강직한 신념으로 해결해냈다. 이후 1978년부터 20여 년간 서울시민노인요양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成相哲원장은 "이런 일로 보다 많은 젊은 의사들이 홍부와과에 도전해 학문의 꽃을 피우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말씀을 늦추시면서 후학들을 위해 큰돈을 내놓은 韓박사님의 비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뇌종양 수술 환자 1억원 기부

암 연구 및 의대생 학비로 전달

모교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암 연구기금 및 불우환자와 의대 재학생을 위해 거액의 기금을 내놓았다.

지난 5월 모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김길례씨(여·58세)는 아들 김택승씨와 지난 7월 11일 모교 병원을 찾아 신경외과 암 연구기금으로 1억원과 모교 병원 불우환자 돕기 모임인 함훈후원회에 매월 3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아울러 모교 의대에도 장학금 명

로 했다.

김길례씨는 "몸소 병마의 고통을 겪은 이후 환자들의 어려움을 더 많이 알 수 있었다"며 "기부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커다란 기쁨을 얻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길례씨는 삼유관련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술 후



좌로부터 김길례씨, 韓大熙교수, 任廷基진료부원장

목으로 매월 2백만원을 기부하기 물리치료중에 있다.

(후)

동 정

수 상

△**朴福壽**(경성경산전문41졸 국민대 명예교수·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고문)=지난 4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구마동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공학부) 수상.

△**李慶淑**(성아50-55 모교 성아과 명예교수)=지난 7월 7일 대한민국 예술원 정기총회에서 제50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음악부) 수상자에 선정돼 오는 9월 5일 수상 예정.

△**李相禹**(행정57-61 한림대 총장·분회 부회장)=지난 7월 8일 한·몽수교 15주년을 기념해 몽골정부로부터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나이라담'(우의) 훈장 수훈.

△**朴鍾世**(화학61-66 랩프린터 사장·자연대 농학회장)=지난 6월 10일 산업자원부가 수여하는 2005 국가환경경쟁력경연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서비스부문 최우수상(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李奎德**(경제63-68 아주대 교수)=지난 7월 12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제23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장려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李振茂**(기계공학63-67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제50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 수상자에 선정돼 오는 9월 16일 수상 예정.

△**諸葛政雄**(산화65-72 대림학원 이사장·월간 한 매운탕 주간)=지난 7월 15일 제2회 한불 원영동문화상 수상.

△**李成祿**(수학66-70 성균관대 교수)=지난 7월 12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제23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장려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李泰漢**(자원공학68-7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지난 6월 2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취업보호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상 수상.

△**李賢厚**(기계공학69-73 한대자동차 사장)=지난 7월 12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제23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공학부) 수상.

△**李南麟**(철학81졸 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제50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인문·사

회과학부문) 수상자에 선정돼 오는 9월 16일 수상 예정.

△**朴尚一**(물리77-81 PSA 사장)=지난 7월 12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제23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장려상(과학기술연구부문) 수상.

△**金受鍾**(71약80-84 MK Jewelry 대표)=지난 6월 9일 일본 진주협회와 마키모도 진주에서 주최한 제30회 국제진주디자인 공모전에서 'The Nature'라는 작품으로 걸작상 수상.

△**朴基熙**(정치82-86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지난 6월 28일 일본 세계문화연구소가 제정한 제1회 나카소네상 우수상 수상.

△**廉明天**(행정82-88 산업자원부 부이사관)=지난 7월 14일 정부과처청사에서 유가등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공로로 훈조 규정 훈장 수훈.

△**金祥熙**(경영84-88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7월 12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제23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경영경영도서부문) 수상.

△**尹能民**(화학47-51 서강대 명예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吳炳南**(미학59-63 모교 미학과 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李益春**(화학8-56 인하대 명예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李共九**(법학53인 법대우총리·서울국제포럼 이사장)=지난 7월 13일 재단법인 통일국제음악제 이사장에 선출.

△**金丁龍**(의학53-59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李忠雄**(통신공학58-60 모교 전자공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李成茂**(사학56-60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趙明翰**(심리57-61 모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吳炳南**(미학59-63 모교 미학과 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崔松和**(행정59-63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7월 15일 국무총리(신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초대 이사장에 임명.

△**李南鎭**(지리교육59-63 모교 지리교육과 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姜寅求**(수의학59-64 모교 수의대 초빙교수·보건대학원동맹회 부회장)=지난 6월 27일 청와대에서 盧武鉉대통령으로부터 임

기 2년의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보건·환경)에 임명.

△**許永燮**(건축60-64 녹지자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6월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박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임.

△**徐大錫**(국문6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7월 8일 서울 해화동 한국방송통신대 별관에서 열린 한국방송문화학회 창립대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

△**李基東**(사학61-65 동국대 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黃錫龍**(행정61-65 현대자동차 상임고문)=지난 7월 14일 우리은행 임사주총에서 사외이사 겸

인 사

△**尹能民**(화학47-51 서강대 명예교수)=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감사위원에 선임.

▲**趙鉉炫**(전기공학62·66 모교 전기기술자협회 부교수·보교 공회 회장) = 지난 7월 8일 최고 포럼에서 열린 국자자문제

이언방(IFAC) 총회에서 임기 3년의 회장에 취임.

▲**李清俊**(독문66졸 순천대 석좌교수·소설가) = 지난 7월 7일 대한민국예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金榮漢**(국사62·65 서강대 교수) = 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金昇奎**(행정64·68 법정부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법무부 장관) = 지난 7월 11일 제27대 국가감보원장에 취임.

▲**李成柱**(사학65·72 모교 동양사학과 교수) = 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黃炳國**(농생명66·70 고려대 교수) = 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李仁淑**(고고인류67·7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지난 7월 7일 보

신사티비물관 규장각에 선임.

▲**徐善錫**(의학68·75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 최근 특기고 인문에서 임명 제12차 세계지공정 부평리 포포스코와 학회연명 총

회에서 집행이사에 선임.

▲**成美寅**(경영69·73 보교 법대학장) = 지난 7월 1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 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선출.

▲**曹大鉉**(법학69·73 서울고법 부장판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朴仁烈**(사회70·74 충남대 교수) = 지난 7월 15일 임기 2년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회' 의장.

▲**崔重卿**(경영70·74 서강대 경영대학원장) = 지난 7월 7일 서강대 대외부총장에 취임. 또 15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

자문회의 민간위원에 위촉.

▲**崔重卿**(경영70·79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 지난 7월 12일 임기 2년의 세계은행(World Bank) 상임이사에 선출.

▲**金德坤**(농학79·83 아이비아이 석무) = 지난 7월 13일 도메인 등록 및 관리업체인 아이비아이 대표이사에 취임.

▲**鄭泰浩**(사회복지82·89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 = 지난 7월 11일

새로 신설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에 임명.

▲**金鍾民**(국문83·92 대한외대 대변인) = 지난 7월 11일 종로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임명.

▲**千明珠**(SCS 3기 회계사) = 행정 23년지사·경기능

지재관 대표) = 지난 7월 14일 인천시 장무시장에 임명.

▲**徐善錫**(AMPP 17기) = 대한수산부 기획관리실장) = 지난 6월 28일 인천항인공사 초대 사장에 임명.

▲**具平壽**(정치47·51 E1 명예회장·문화·교문) = 지난 6월 30일 판공을 맞아 자신의 인생을 담은 **古書 형태**의 회고집 **『窓』**

발간.

▲**崔達起**(행정49·54 모교 현대문학대 교수·한국 국제관계연구소 이사장) = 지난 6월말 **『러시아의 교정책』**(서울대

출판부)를 출판.

▲**朴聖泰**(의학58·64 새서울병원장·한국약사협회 회장) = 지난 7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복지부 **金泰泰**(경제65·72)장관을 초청, 의학계의 현안문

제를 논의하는 **『한국학 개회』**

▲**曹主壽**(법학60·64 한국상속등

산대 총장) = 지난 7월 13일 서울 동송동 한국방송통신대 회의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 **鄭錫福**국

재정경제원장과 'e-러닝 관련 중소기업추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金勳東**(농학63·69 수원여초 회

장) = 지난 7월 8일부터 이틀간 수원 민속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14회 수원에 속자인 '해피수

원 아트 페스티벌' 개최.

▲**朴明賢**(보내원74·76 한국철소

년연·조선 이사장·한국과인턴클럽 총재·관악회 이사) =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유스클럽에서 환경관리공단 **李萬基**이사를 강사로 초빙해 제40회 전국 대학생 하계수련회 개최.

▲**李昭柱**(회화76·80 삼실아트 대표·경매대 겸임교수·한국미술

부이사장) = 지난 6월 17~27일 서울 잠원동 갤러리 우너에서 '생명의 굿바이'이란 주제로 제28회 개인전 개최.

▲**金在美**(기악84·88 건국대 교수) = 지난 7월 7일 서울 남포아트에서 악베

니스, 화아, 그라나도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스페인 피아노 음악으로

의 조개' 개최.

▲**申敏兒**(기악85·89 성석대 겸임교수·피아노스트) = 지난 8월 13일 여중의 전담리사이클에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여름날에 듣는 쇼베의 향연' 개최.

▲**鄭潤正**(정대원85·87 한국교육

과정평가위원장) = 지난 7월 14일 서울 삼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7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朴永奎**(ACAD 43기 현대시비트 상임강사) = 지난 7월 6~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국상장화사업의 회 주최 국제제

미나에 제7차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해외특별연수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교수협의회 회장) = 지난 6월 22~27일 민주평통차문위원 1백23명과 함께 중국 다둥 국제호텔 등지에서 평화통일국제제비

나와 고구려 역사 탐방 및 동양시

연 개최.

▲**동정회관** 5층 관악촌에서 화족을 배웠던 등)

*노재은(불문98·03)·심병도 씨=8월 28일 13시.

*장은홍(자연과학94·99)·이근연 씨=9월 3일 14시.

명사

박죽

추억의 창

禹在九(상학55-61)前동부생명보험 대표

‘후진국경제론’ 시험문제 지금도 ‘생생’
병영에서 취중에 교가 우렁차게 불리

1955년 대학 시험 보러 올 때 처음 서울 구경을 한 경북 영주 촌놈이라 입학 통지를 받고 나니 꿈인지 생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이 책 저 책 닦치는 대로 읽다 보니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함을 느꼈다.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생산이라고는 농업 등 1차 상품뿐이고, 수출은 연간 2~3천만 달러, 일인당 소득은 80달러 미만, 미국의 원조로 겨우 생활을 꾸려 가는 가난의 잔치를 해내는 후진국 중에 후진된 나라가 당시 대한민국이었다.

콜롬비아대학을 나온 朴東愛교수는 미국의 박사 교수가 쓴 후진국경제론을 번역하여 강의했다. 그의 강의 중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 ‘빈곤의 악순환’은 소득은 그 소비에도 모자라서 저축이 없고 따라서 투자할 재원이 없으니 성장이 없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두 고리를 돌고 있는 말이다.



1961년 동국대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졸업기념 촬영(좌로부터 세 번째 필자)

38년 [학기] 후진국경제론 기말 시험문제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쓰라’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말 시험이 끝나고 당시 상대 부근 중앙동에서 자취를 하던 權聖植(상학51 61)형 자취방에서

李萬用(상학53-59), 柳熙奎(경제55-59), 唐京植(상학55-59), 朴海柱(상학55-62)등은 등이 어울려 김치에 고춧가루를 넣어 볶인 김치찌개를 안주 삼아 막걸리 파리를 열었다. 취기가 오르니 우리는 고성방가 8자가 마지마에는 가장 힘차게 서울대 교가를 불렀다.

‘가슴마다 성스러운 아름을 품고...’ 시험에서 벗어나는 해방감과 함께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할 돈이 없다는 나라 걱정. ‘그러면 어떻게 해?’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큰 보람’이 되어야 한다고 소고 놀며 교가를 불렀다.

그 해 7월 우리는 학내병으로 약대했다. 학내병은 최진방 배치가 원칙이었다. 대신 1년 반이르는 단기복무 해박이 있었다. 같은 대대에 배치된 친구 중 金英萬(경제55-61)등은 운이 좋아 대대 주보

(濟州-군대 배정)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때 군 생활 중 제일 큰 어려움은 배고픔이었다. 대대 주보에는 술을 비롯해 먹을 것이 많았다. 일과가 끝나고 시간만 나면 朴海柱(경제55-62), 姜慶植(상학55-61), 金英萬(국어교육60졸)등은 등이 주보에 모여 金英萬등은 락백에 주린 배를 채웠다.

어느 날 박 술을 마시고 네 사람이 의기투합해 교가를 큰 소리로 불렀다. 밤중 병영 내에서 서울대학교 교가 우렁차게 퍼져 나가니 주변 장교가 놀라 뛰어 왔다. 서울대학생들이 모여 취기에 부르는 우리 교가의 노래 가사에 기가 죽어 교향도 못 지르고 조용히 할 것을 부탁하고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그 연한 병영에서조차 서울대학생들이 만나면 교가를 2점까지 힘차게 불렀다. 반(半)은 빈곤의 서러움을 달래는 뜻에서, 나머지 반은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큰 보람’이 되었다는 결의로...

50년이 지난 지금 돌아켜 보면 그 때 교가를 부르며 간절히 소망했던 ‘빈곤의 악순환’ 탈출이 결실을 맺어 지금 이만큼이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 때의 이 소망과 발원한 서울대 젊은이들의 정열과 정열의 표현이다. 50년 전 우리의 절절한 발원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듯이 지금 젊은 우리 후배들은 무엇을 발원하며 교가를 부를까 궁금하다.

신 간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프랑스? 그런데 한국은...

—丁奇殊 지음



모교와 공주대 교수를 지내고 프랑스 교육·문화·사회·언어·언어학(AMOPA) 한국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丁奇殊(불문 47-51)등본이 프랑스 교육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 나라의 제도와 비교 논평한 책을 펴냈다.

3부로 나뉘어 1부에서 프랑스의 학교 교육을 소개했으며, 2부에는 교육부의 ‘해외파견 연구교수’ 제도에 따라 발보인 논문이 담겨 있다. 마지막 3부에는 우리 나라의 프랑스의 교육제도 중 중요한 문제들을 상호 비교해 놓았다. (배영사·값15,000원)

斷想의 餘韻

—朴衡圭 지음

제10대 국회의원을 지낸 朴衡圭(정치48-57 대한민국 원성회 이사)등본이 南壽을 기념해 그동안 집필해온 글들을 모아 詩文 등을 펴냈다.

이 문집에는 우리가 보다 알바



는 충고 어린 글들이 담겨 있다. 1부 文集, 2부 詩, 3부 斷想 등을 통해 차동문의 경관과 경계선의 편린을 잡히고, 인생철학과 내면세계도 엿볼 수 있다. (지식과 사관출판·비매점)

48년 후 이 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崔順達 지음



트레이더 회장(중문의 삶과 과학 이야기) 담긴 자서전. 한국과학기술대학 초대 학장으로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과 인공위성연구센터를 설립해 제자들을 유망 보내면서까지 대한민국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노력은 과학자로서의 집념과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崔順達은 현재 우리 기술로 인

공위성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수출 하려는 목적으로 벤처기업인 세드락이 이를 설립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좋은책 행간출판·값 11,000원)

한문 정각 시회
—許信行 지음

동림수산 부 장관을 지낸 許信行(농경제62-66)등본이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세로운 문명사

화를 찾아내 그동안 다 잊어버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회과학으로 접근한 새로운 이문서를 출간했다. 순환론과 진화론, 기술 결정론, 가이아 이론, 자기 조직화는 우주 논의 다양한 이론에 비해 한류 정각 사회를 조망했다. 또 한류 정각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29가지로 예측하여 흥미를 더하고 있다. (북우사·값8,000원)

經濟, 經濟思想

李柱星 지음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한 李柱星(대학원62-65)등본이 종속이론과 제3세계, 외채를 보는 눈, 통일 후의 우리 경제, List

공연

소프라노 申珠蓮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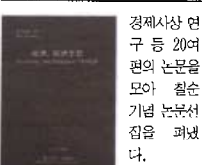
8월 29일 영산아트홀

소프라노 申珠蓮(상학79-83 단국대 초빙교수)등본(사지)이 8월 29일 영산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프랑스가곡 연구회·우리가곡 연구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申珠蓮은 이날 산유화, 금산지,



그리운 고향, 창신리 별겨수아 등 우리가곡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1970년 8월 15일 밤 독인 유학 중인 李柱星이 해를 넘겨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스타다움 승리가 기념비에 새겨 넣은 전기적 선수의 잘못된 국적을 불라 말지로 'SON KOREA'로 정정한 후 IOC에 청원하고 언론에 호소한 내용도 수록해 있다. (성신여대출판부·값300원)

대관령 연가

—諸葛政雄 지음

사별한 부인에 대한 애절한 기



억과 가슴 시린 그리움을 담은 자연 수필집 '하늘에 띄우는 연가'를 펴낸 바 있는 諸葛政雄(상학65-72 대관령원 이사장)등본이 최근에 시집 '대관령 연가'를 출간했다.

이번 시집으로 오랜만에 시인으로서 활동을 재개한 諸葛政雄등본은 목련, 바다, 도사실, 컴퓨터, 편지 등 자신의 마음에 비친 자연과 일상적인 삶의 주제를 솔직하고 깊이 있는 언어로 빚어냈다. 부인과의 이별의 아픔은 이번 시집에도 짙게 묻어났다. (한민문화출판부·값10,000원)

데스크에서

“동창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뭔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는냐?”

지난달 동창회교편 논술고사 문제로 모교와 정부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시무총장으로 동창회 회장님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 수많은 동문들이 단진 함의조의 충고였습니다.

사실 당시 이런 긴장의 와중에서 동창회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꽤나 정신없이 바빴습다. 입원 및 간부 동문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책회의도 하고 모교 측과 수차례 전화회의도 하면서 관련기관의 정보에도 촉각을 세우기 했습다.

우선 현재의 사태를 심층분석한 결과 정부 고위층의 강력한 문제제기의 이유는 일관된 병준과 주장의 일침이거나 일부 신문보도와 같이 지지를 하려다 관련된 국민전화용 종의 해자로 집어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동창회가 어디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강경파와 신중파의 갈림줄이 있었으나 결국 시간이 지남수록 신중파의 수가 점점 늘어만 갔습다. 즉 보도를 보고 흥분했던 동문들도 차분히 사태를 분석하고 동창회 차원의 조치의 준비가 되고 역기능

을 따져보니 모두 신중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경적 대응과 실리상상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창회는 우선 당분간 설문 대응은 미루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동창회가 성명서 발표 등 단행행동을 자제하고 사태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본 사태는 ‘동창회교편 논술고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관점과 어휘상 해석문제가 본질이었으며 이것이 정부의 학원감사로 비화된 면이 있으나 동창회가 나서기는 시기상 적절치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7월 10일 오전 KBS 대담프로에 참석한 서울대 **李鍾範** 입학관리본부

“모교도 동창회도 모두 잘했다”

許 璿
(정지64·68)
본회 사무총장
본보 편집주간



정과 교육인적자원부 **徐鍾宰** 차관보는 약간의 어휘상 문제만 작 조정해서 대책을 세우면 모교와 정부간의 근본적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둘째, 동창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교에 파해가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창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현안이 아닌 정부의 검토태블에 놓여있는 차체에 동창회가 여과적 행동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는 듯 한탄 일입니다. 성명서 발표 정도로 모교에 결정적 흡입이 날 수 있는 일을 벌일 수 없습니다.

셋째, 민심은 천심이며, 약자의 편을 동장하지 마련입니다. 급변 사태가 발생한 초장에 정부고위직에 있는 인사가 모교에 대해 “비밀잡다, 손 좀 보겠다, 초종진입” 등의 위협적인 언사로 강경대응한 것이 모교엔 오히려 호재가 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즉 정부와 맞서서 고군분투하는 모교 총장이 부당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비쳐져 일시에 민심이 모교 쪽에 유리하게 기울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서울대에게 좀더 나누고 베풀라는 불을 쏘고 있는 때 동창회가 나서서 본전에 대해 큰 목소리를 냈다면 오히려 민심은 역류하지 않았을까?

동창회는 항상 모교를 생각하며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모토에 충실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읽고

작은 동창회보가 주는 큰 메시지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의미의 가슴에 새기고 대학원 경영학부를 졸업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이제는 가슴 학순대하나 겪고나갈 관련 동문의 경우에만 모교를 찾는 행을 뿐이고, 대부분 동창회보를 통해 모교와 은사님 소식, 그리고 동문의 동정을 듣고 있다.

동창회보는 중·고교, 대학 등을 막론하고 저·간접으로 동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고 모교와의 유대를 끈끈히 하며,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귀소 매체이다. 특히 학교의 자성이 라너로서 국내외로 활약하고 있는 동문의 모습들을 정기적으로 상세히 전해주는 그 역할은 더없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서양 문화와는 달리 동양 문화는 대체로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개인보다는 무리가 더 우선시 된다. 우리 문화의 장점은 혼화함과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다. 혼화하고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속에서 끈끈한 정으로 뭉쳐질 때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동창회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충실하는 우리 문화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다양! 포용이 어려운 면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가 주는 장점을 잃지 않고 다양성을 실현한 인간가가 보완할 과제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읽은 책 중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은 나름대로 코앞이 평할 정도로 감동을 주고 그런 살아온 나 자신의 성찰해도를 뒤돌아보게 한다.

가족 간의 사랑, 우정 등 앞을 풍요롭게 채워 주는 대략 50가지에 이르는 의

미 같은 일들을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림으로 따뜻하게 담아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큰 부를 이루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소중한 지혜를 들려주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조금만 나눌 낮추고 보



趙泰玄
(대학원79·83)
중소기업청 동인현
소상공인지원센터장

면 작은 일상도 중요하게 감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꿈을 심어 주기 때문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주연을 돌리보: 여유와 더불어 함께 가는 인간관계 등을 다시금 살펴보고, 회합과 자신감을 심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창회보는 잊고 지냈던 학생시절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위의 책처럼 작지만 큰 메시지를 준다. 동창회보를 넘길 때마다 모교와 함께 은사님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고, 소식 많은 동문 선배와 친구의 안부를 묻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한다. 그리하여 모교와 동문, 그리고 사회를 다시 바라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우리 사회의 월드컵대표팀”

최근에 한 시사주간지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3대 사회적으로 호남항우회와 해병정우회, 고대교우회를 꼽고 각각의 조직 사람들 특징과 행동양태, 전술적 일화 등을 취재한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 서울대 동창회는 아마도 위에 딸한 ‘막

서울대 졸업생들이 우리는 특권과 뛰어난 책임의 무게에 비취를 때 비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전이 아닌가 싶은 편이다.

졸업 후 줄곧 맡은 일에 열중하고 보람도 느끼면서 살았다. 인맥 혹은 네트워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나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적어도 ‘공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 말은 그러나, 인맥을 ‘공식적으로’ 접박하게 추구할 필요가 없었던 정도로 서울대 프리미엄을 얻게 되르게 누리고 싶었다는 말도 될 것이다.

서울대는, 용감하게 비유하자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월드컵축구 대표팀이다. 사람들의 기대도 그렇고 인재의 배출 빈도 면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들 국가 대표 선수들이 대표의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욕망과 성취, 영달에만 탐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곤 본다. 국가대표와 함은 국내에서 1등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세계로 나아가서 거기서도 일류로 인정받으려는 이 사회의 기대가 포함된 개념일런데 말이다.

최근에 서울대이로서 자랑스러운 적이 한 번 있다. **黃錫淵** 교수와 그 연구팀의 논문가운 노력과 헌신,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도를 봤을 때였다. 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서울대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일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헌신과 사랑감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말이다.

90년대 후반, **金大中** 학대통령이 “서울대인!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운 때 비로소 일류가 될 것이니”란 요지의 발언을 듣고 고개를 크게 끄덕여왔던 적이 있다. 그 말의 윤곽이 새삼스럽게 시릴이다.



韓惠進
(가정관리81·85)
해양경찰청
정책홍보담당관

강 3대 모임’과는 성격이 꽤나 다를 것이다. 한창에는 “보여서 뭉가를 도모하기에는 각자가 너무 잠잠하기-”하는 비아냥거리는 평안이 정상처럼 떠돈다. 데이브한 여자- 춤다도 해도 서울대생은 “나도 주워”하며 는 하나 짝짝 안한다는 우스개가 지금껏 유행하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그런인가, 요 몇 년 동안 ‘서울대 만국론’도 크게 램을 얻었고 가장 최근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사에서 ‘이기적인 서울대’를 향해 일제히 공격의 포탄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종류의 설악설과를 뒤쫓아서도 심각하게 마음이 흔들린 적도 없고 상처받은 더러운 적이 없다.

△최치원 △최충헌 △최정민
△최태선 △최영웅 △최정환
△허재성 △허태경 △허광현
△한근숙 △한대희 △한반표
△한복남 △한승만 △한성철
△한순호 △한승규 △한완구
△한찬권 △한철중 △함원선
△하 총장 △하석영 △하종범
△홍기우 △홍성룡 △홍성일
△홍성남 △홍제진 △홍천환
△홍진주 △홍현민 △홍남수
△황선국 △황선욱 △황성조
△황용준 △황의성 △황정민
△황창렬 △황철수

◆농대 △강경원 △강광희
△강무준 △강나은 △강원환
△강원우 △강정일 △고정원
△고흥서 △공순상 △곡인식
△고병평 △권승철 △권익환
△금대섭 △김 인해 △김경석
△김경희 △김기갑 △김래환
△김광배 △김기경 △김대택
△김동삼 △김두만 △김두서
△김근우 △김근아 △김방성
△김병욱 △김병환 △김부수
△김상우 △김시호 △김승현
△김삼수 △김시형 △김정환
△김영각 △김영권 △김영규
△김영덕 △김영관 △김영진
△김유환 △김윤환 △김의철
△김재훈 △김정호 △김정호
△김정목 △김종성 △김종현
△김종현 △김준환 △김준환
△김지현 △김진호 △김철우
△김태희 △김박주 △김정길
△김태호 △남상준 △노송우
△류서준 △문지혜 △전경백
△민두환 △민병철 △박명준
△박가기 △박삼환 △박신환
△박소화 △박신준 △박유재
△박우환 △박유호 △박유환
△박정열 △박재환 △박재환
△박정환 △박종국 △박종산
△박종우 △박창환 △박창환
△박홍준 △보성환 △벽종환
△백정환 △백성환 △서광환
△서우환 △송경민 △송계환
△송기연 △송춘준 △송태환
△사기환 △신희환 △성봉환
△신민환 △신유근 △심재환
△안의환 △안재환 △안정환
△양성환 △양승환 △양남수
△오기환 △오기환 △오환환
△우병환 △우효환 △위기환
△유서환 △유광주 △유승환
△유윤휴 △유동주 △유준환
△유시우 △유영준 △유종환
△윤성환 △윤진환 △윤준환
△윤성환 △윤환환 △윤환환
△이건환 △이계환 △이권환
△이기환 △이바환 △이바환
△이대환 △이동주 △이병환
△이병환 △이상환 △이상환
△이성환 △이성환 △이세환
△이수환 △이수환 △이승환
△이성환 △이여환 △이우환
△임환환 △이의환 △이환환
△이환환 △이환환 △이환환
△이환환 △이환환 △이환환

[illegible]